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어르신 문화학교

2009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문화예술사업으로 고령화시대 노인세대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삶에 기여를 추구합니다.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문화예술 체험이
 아닐 나이, 아닐 나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는 것이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의 꿈입니다.

주최:  한국문화재단협회 주관: 지방문화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2009
8

Vol. 205 August

우리문화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위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09.8 우리문화

통권 205호 August



표지 | 거창문화원
거창문화역사알기 체험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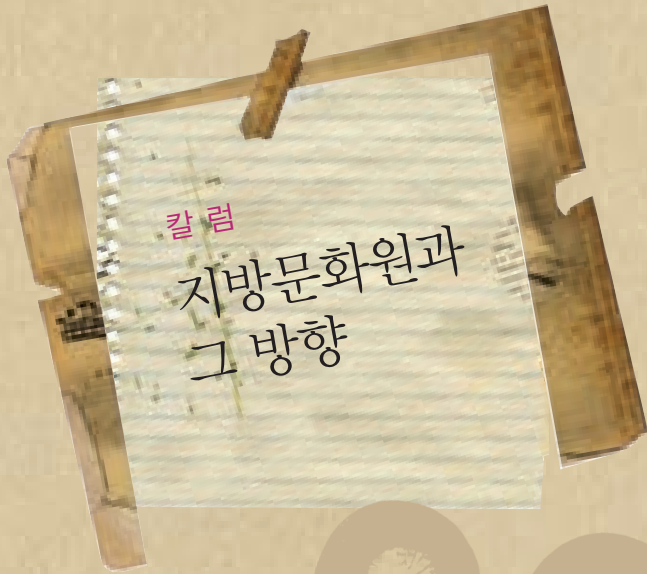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종(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심(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02	칼럼
06	특별 기고 지방문화원과 그 방향
10	문화원을 듣는다 여주문화원
15	함께읽는 시 백자白瓷를 보며
16	대동놀이의 유형과 문화적 의미
20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찾아서
24	모여놀이 시작했다! 젊은국악연대
28	문화원 탐방 목포문화원
34	문화원 이야기 합천문화원
38	효동·영광문화역사마을
40	구리문화원
44	자료조사론 향토사 연구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
50	기획 혼인례(婚禮)
56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59	신간소개
60	원장동정



계급장 떼고 얘기하자

출구 앞에서 백합은 2다발에 3천원, 장미는 3다발에 2천원 등 아주 싼 가격에 꽃을 파는 즉석 꽃 리어카 아주머니가 나타난다.

즉석 꽃 리어카 아주머니는 인근 꽃가게를 돌며 날짜를 넘기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시들기 직전의 꽃들만 모아다가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데 요즘말로 대박히트를치고 있다. 대박히트의 비결은 시간이 지나면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꽃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특수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특수한 유통경로를 통해서, 특수한 가격대를 유지하여 판매하는 것이 꽃 리어카 아주머니의 비결일 것이다.

문화원 안팎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문화의 집, 사회복지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평생교육시설, 한국예총 등 크고 작은 단체와 시설들이 문화예술을 표방하며, 유사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과연 우리문화원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각 조직의 정관과 운영규정, 조례들을 보면, 다소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겠지만 천편일률적 문화교실의 강좌내용을 보면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이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지역문화

21세기에 들어 다양한 문화가치와 문화예술의 역동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문화의 세기에 새롭게 추구해야 하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다.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활동/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 사업은 향토축제, 지역문화행사, 청소년의 인성교육, 노인대학, 미술전시회, 주부백일장, 시 낭송회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부 문화원에서는 지역 향토 사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고 향토 사료의 조사·수집·연구 활동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은 문화 예술 교육사업의 추진, 지역문화 발굴 및 보존, 문화행사의 주최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다양한 문화가치와 문화예술의 역동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문화의 세기에 새롭게 추구해야 하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다. 변화된 시대환경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거침없는 물결은 문화부문의 획일화를 추구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방문화원의 현실은 암울하다. 지역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역은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자립형 지역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채울 수 있는 지역문화는 부재하여 하드웨어의 틀만 갖추고 소프트웨어는 궁핍과 퇴조,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경제적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는 멸실·훼손되었으며 문화 부문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은 지역문화를 고사(枯死)하여 지역문화는 중앙에 종속된 하부문화 쪽으로 차츰 전략하고 있다.

이러한 악재와 맞물려 주변 유사기관들에 의해 사업들이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원과 지방문화의 발전에 대해 언제 한번 피를 토하며 논해 본적이 있는가? 계급장 떼고 3박 4일 낱밤 세우며 토론해 본적이 있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하루빨리 자가당착적 모습에서 벗어나 치열한 문화전쟁의 삶터로 뛰어 들어가 할 때다.

외부 컨설팅을 통해 우리를 진단·변화시키자.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와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문화원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음악감상, 전시관람, 공연관람 등 소극적인 문화향유 공간기능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발적인 문화집단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문화원의 백화점식 사업들은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주변 유사기관들과 기능이 겹치고 중복되어 이들에 의해 점차 추월되고 점령당하고 있다. 철 지난 논의일지는 모르나 문화원에 대해 주변의 시선으로 제대로 평가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들만의 시각으로, 우리들끼리 모여, 우리들만의 잣대로 평가하고, 우리들끼리 박수치며, 우리들만 좋으면 되는 끼리끼리 문화원운영이었지, 언제 한번 외부의 평가를 받아 실행해 본 적이 있는가?

상품에 대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소비자들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라며 큰소리 뽐뽐치는 생산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소비자는 바보 멧덩구리라며 거드름피우는 생산자도 있다. 엄청난 착각이다. 지금 우리문화원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표적시장을 찾아 블루오션에 안착할 것인가이다.

문화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문화원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복잡한 과정을 문화마케팅이라 한다면, 이런 복잡한 흐름의 중심에서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 등의 요소들을 일관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종합적인 마케팅전략이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라 한다.

이것의 우선단계로 SWOT분석(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기회요인-Opportunity, 위기요인-Threat) 등 문화원의 다양한 형태의 내·외부요인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하겠지만 마케팅기법을 통한 문화원 경영의 합리화를 제안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자의 시선과 내부조직에 의한 일상적인 형태의 평가와 컨설팅이 아닌 외부용역, 전문 컨설턴트에게 지방문화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가감 없는 실행이 후속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행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함몰되지 않는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이룩하여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기상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
진흥재단 이사장

특별기고

방송매체의 문화적 기능이해와 전략적 접근

문화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량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강화되어가고 여기에 국민의 생활환경이 여유로

워지면서 인간의 문화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욕구라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취감과 만족감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면서 공영방송 KBS를 비롯한 여타 방송매체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것은 곧 현대인의 생활에서 방송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가고 있으며 그 영향 또한 지대하기 때문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문화사업의 전개가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문화적환경과 문화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관련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 관련 주체기관들은 방송매체의 문화적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전략적 차원의 접근과 시도가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방송매체의 문화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을 지상파 방송 3사 중 공영방송 KBS를 중심으로 개괄해보고자 한다.

KBS 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환경 감시 및 비판, 여론형성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창달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며, 고품위· 고품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건전한 방송문화정착을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즉, 국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방송으로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KBS는 국민의 이름으로 방송의 자유를 누리고

방송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양, 오락을 충실히 제공하면서 '공공의 이익, 공공의 필요, 공공의 편익'에 성실히 봉사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KBS는 그 설립목적과 활동을 규율하는 정관을 위시한 관련법과 규정에서 특별히 문화영역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과 문화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도록 그 책임 또한 부여받고 있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전국 지방문화원 또한 설립목적과 사업에서 정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전승, 지도 및 지원 등 문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KBS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관련 사업과 이미 상당한 공통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KBS와 한국문화원연합회(전국 지방문화원)간 관계와 협조 여하에 따라, 다소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방송을 이용한 공익적 사업의 홍보와 정책적 정당성의 확보에 크게 기여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더욱이 KBS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이끄는 문화적 취향의 다양화를 추구 하고 있고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청자의 삶에 즐거움과 위안을 줄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개인적인 능력과 예술적인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풍부한 문화적, 예술적 관점과 재능을 수용할 공익적 사업을 동시에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KBS는 특별히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술은 우리 조상들의 예지와 예술적 재능이 축적된 소중한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오늘날 세계가 한 집안처럼 가까워지고 인류가 새로운 문화예술에 목말라하는 상황에서 전통예술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새 예술을 창조하는 바탕이자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육성함으로써 새 예술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KBS가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관련 문화사업으로는 경연 및 시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한민족의 긍지를 지키며 인류복지증진과 문화창달에 이바지한 동포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해외동포상', 전통문화

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와 국악의 체계적 보존, 계승 발전과 국악인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국악대경연', 클래식 발전을 위한 신인 음악인 발굴과 데뷔무대를 제공하고 있는 'KBS한전음악콩쿠르', 차세대 시청 주도층의 안정적인 저변확대와 미디어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년VJ 콘테스트' 등의 다양한 부류의 문화사업을 자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의 다양한 '공익적 문화사업과 행사'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춰 지원해 주도록 정관에 명시하여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통예술(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이 등)과 순수문화예술(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무용 등) 관련 사업,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과 지역문화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와 자선공연 등의 사업과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행사 및 사업은 공사가 주최하거나 외부기관과의 공동주최 또는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전통문화예술 전승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행사 및 사업도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KBS는 지역국을 제외한 본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외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형태의 사업과 제휴하여 연간 약 250여건의 각종사업을 해당기관과 공동주최, 주관 또는 후원의 형태로 공익에 근간한 사업에 방송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화사업도 해당 지역국에서 자체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게 각종 공익적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공익적 문화사업들이

외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필자가 관련 사업부문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지

난 몇 년의 기간 중에는 적어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또는 지방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떠한 경우의 사업도 KBS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적 문화사업의 추진하는 주체기관과 방송매체의 적절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제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심지어 방송문화사업을 관할하던 필자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각 지방문화원이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되는 각종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보나 기회

가 전혀 없었으니,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물론 기관의 특성 등에 따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우선은 방송사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점도 있어 보이고, 또 그간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의 특성상 방송을 통한 홍보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 점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인해 결국 문화사업 전반에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를 통한 발전과 확산은 더디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의 활동목적과 기능수행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지원의 부족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등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런 애로를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방송과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하여 목적하는바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의 수행기능 중 전통을 바탕으로 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각종 문화 행사, 축제, 공연, 공예를 비롯하여 관련부문의 수많은 명장과 고수 등은 말 그대로 진흙속의 솜은 보석이요, 우리 민족의 더할나위 없이 값진 유·무형적인 숭고한 자산이다. 이를 발굴하고 보존, 계승함은 물론 개방하여 콘텐츠화하고 문화상품화하여 더러는 전통문화보존의 사회적 기업화로의 발전은 물론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어찌 보면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의 비전과 핵심적 과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행사 규모에 맞는 홍보전담인력을 구성하여 방송매체의 문화적 기능활용을 통한 홍보·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가능한 방송매체와의 연계와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조의 틀을 마련하여 주체기관으로서 주도적 견인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의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때이다.

정길남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문화원을 듣는다 여주문화원 |

문화. 역사유적의 보물창고 '여주'





여주
(驪州)

라는 지역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여주쌀’ 과 ‘여주도자기’를 떠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주’에 대해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듯이 여주는 왕실에 바쳐지던 쌀을 생산하고 여주도자기축제로 알려졌듯이 도자기를 연상 하지게 됩니다.

오늘날 여주는 경기도에 4개만 남은 군(郡) 규모의 작은 고장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여주는 작은 고장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주에는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굴(여주읍 연양리)되었을 뿐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쌀농사 유적과 유물, 여주혼암리식 토기로 분류되는 독창적인 선사시대의 문화부터 시작하여, 여강(驪江, 여주 남한강의 또 다른 이름)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백제·신라가 각축전을 벌이던 파사성과 술천성 등 삼국 시대 유적과 매장문화가 남아있는 여주읍 매룡리 등 역사유적이 산재합니다.

여주의 도자기 역사는 청동기시대 혼암리토기에서 시작하여 고려초기인 10세기 초에 이미 우수한 품질의 백자를 생산한 중암리 고려백자유적지를 비롯한 40여개의 옛 도자기 가마터가 있으며, 광주분원에 백자토, 상감토와 규석 등 도자기의 원료인 흙과 유약재료를 공급하던 싸리산 등 다양한 도자문화유적이 있으며, 지금은 500여개의 도예공방과 생활도자기전문업체가 활발하게 예술작품도자기와 생활에 편리한 도자식기부터 장식용 도자벽화까지 다양한 도자기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도자기 산지로 도자기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강(남한강)변에 위치하여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인 묵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시와 그림으로 칭송된 여주팔경과 청심루(淸心樓) 등 다양한 문화유물 및 유적지가 산재하여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국보 및 천연기념물 등 71점의 문화재가 있는 대한민국 역사유적의 보물창고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화재와 문화·역사유적과 더불어 한글을 창제하신 겨례의 성군 세종대왕과 북벌의 응지를 품으셨던 효종대왕께서 잠들어 계신 고장이며, 목은 이색, 이완 장군, 우암 송시열, 백운거사 이규보 선생의 얼이 깃든 곳이 여주입니다.

여주는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대한제국 최초의 황후로 백척간두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펼치시다 왜적에 의해 시해당한 명성태황후(明成太皇后, 이하 '명성황후')를 비롯하여, 세종대왕의 모후이신 원경(元敬)왕후, 숙종의 인현(仁顯)왕후, 영조의 정순(貞純)왕후, 순조의 순원(純元)왕후, 헌종의 효현(孝顯)왕후, 철종의 철인(哲仁)왕후, 순종의 순명효(純明孝)황후 등 조선의 국모 8명을 배출한 왕후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주는 조선왕조와 인연이 매우 깊은 곳으로 이처럼 많은 왕비가 배출된 배경에는 여강(남한강)을 끼고 잘 발달된 수운을 따라 한양 입성이 쉬울 뿐 아니라 가뭄이 없고, 강의 물 흐름이 빨라 홍수 피해가 적어 명문가들이 살기에 적합했던 지리적 잇점도 작용했을 것 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빠지지 않는 불교와 관련해서도 겨례의 성군이신 세종대왕의 원찰(명복을 빌고 영혼을 달래주는 절)인 신륵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고려 말에 나옹선사가 머물렀던 것으로 유명하며, 보물 제180호인 조사당, 보물 제225호인 다층석탑, 보물 제226호인 다층전탑, 보물 제228호인 보제존자석종, 보물 제229호인 보제존자 석종비, 보물 제230호인 대장각기비, 보물 제231호인 석등

이 있는 사찰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강가에 세워진 절로 유명하고, 764년(신라 경덕왕 23년)에 창건되어 고려시대에 특히 융성했던 고달사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 보물 제6호 고달사 원종대사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보물 제7호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 보물 제8호 고달사지석불좌 등 불교문화의 정수가 함께하는 고장입니다.

또한 여주는 일제가 강제로 대한제국을 병탄할 때 의병 300명을 이끌고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하여 일본군과 혈전을 벌이는 13도창의총대장 이인영을 비롯하여 다수의 의병장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의병을 일으켜 가장 치열하게 대일항쟁을 벌여 큰 공적을 세웠던 격전지로 의병항쟁의 중추적인 역할을 선도한 곳이며,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홍병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설립자인 김홍배 박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와 육영사업가를 배출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며, 특히 조선시대의 걸출한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을 모시고 있을 뿐 아니라 명성황후를 비롯한 조선시대에만 8명의 왕비를 배출했기에 여주는 '왕과 왕비의 고장'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왕비의 생가는 여주읍 능현리의 명성황후의 생가만 보전돼있고 나머지 왕비들의 생가는 흔적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주문화원과 여주군은 향토사학자의 고증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왕비들의 생가를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읍 능현리의 명성황후 생가는 안채만 남아있던 생가에 사랑채, 행랑채 등을 복원하고 생가 앞에는 명성황후기념관을 건립해 각종 자료와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공연시설인 명성황후문예관, 전통민가 조성 등 주변정비를 마쳤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제19대 임금인 숙종이 인현왕후의 친정을 위해 지어준 집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된 후 거처하였으며, 1866년(고종 3년) 명성황후가 왕비로 책봉될 때 거처하던 '감고당(感古堂)'을 명성황후의 생가 옆으로 이전·복원하였습니다.

특히 여주는 세종대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여주'라는 지명입니다. 그 전에 우리 고장은 시대에 따라 골내근현(骨乃斤縣), 황려(黃驪), 황리(黃利), 여성(驪城), 여강(驪江), 여흥(驪興) 등으로 불렸으며, 1469년(예종 원년)에 세종대왕릉(영릉)이 여주로 옮겨오면서 그해 8월 8일 천령현과 여흥부를 합하여 여흥목(驪興牧)으로 승격시켰고 이어 8월 18일 여주(驪州)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고장은 세종대왕을 모시면서부터 '여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주에서는 1962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을 전후하여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는 '세종문화 큰 잔치'를 여주의 대표적인 향토문화 행사로서 이어오고 있으며, 세종대왕 탄신일이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맹 퇴치의 날인 5월 15일에는 전통 다례제와 선율이 웅대하고 화평하여서 조선시대를 통하여서도 장악원의 으뜸가는 대곡으로 꼽히는 궁중악인 여민락(與民樂: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의 연주로 식이 거행되는 '세종대왕숭모제전'이 지역의 도예가와 문학인 사진작가 등이 참여하는 도예전, 사진전, 시화전 등과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께서 시해 당하신 10월 8일에는 국내외 많은 관람객과 지역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건하게 추모제를 거행합니다.

이 추모제는 명성황후를 기리는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공연과 행사의 참여주체가 되고, 참여단체들의 노력으로 참가자 모두에게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연대감을 넓혀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강(남한강)변에 위치하여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인 묵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시와 그림으로 칭송된

여주팔경과 청심루(淸心樓) 등

다양한 문화유물 및 유적이 산재하여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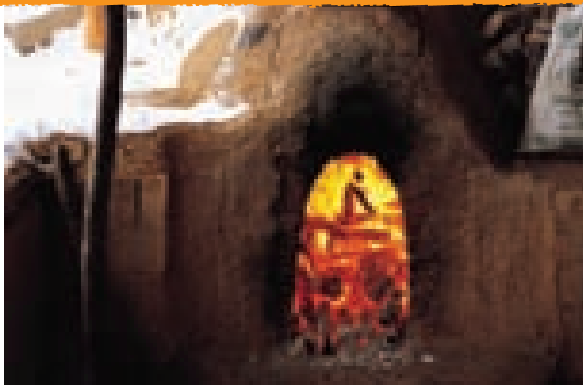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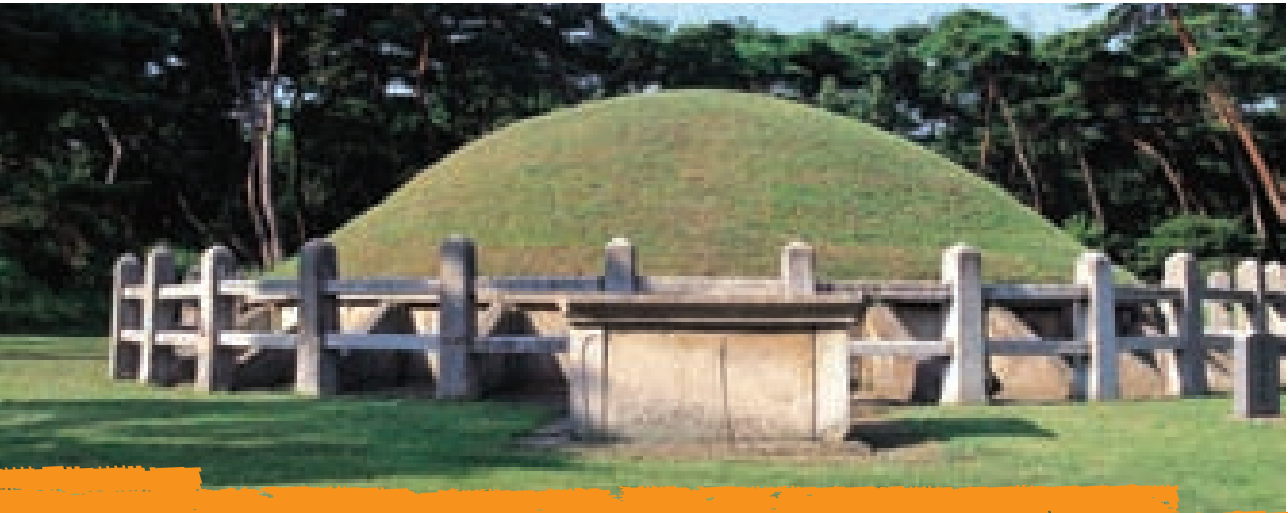
국보 및 천연기념물 등

71점의 문화재가 있는

대한민국 역사유적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탄신일과 명성황후의 탄신일과 추모제를 통해 세종대왕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을 배우고, 명성황후의 생애를 관통하는 뜨거운 애국 혼을 통해 국내·외 정세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지혜와 함께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짓밟히는 것을 바로잡고 후세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명성황후의 거룩한 영혼의 울림을 듣게 됩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을 통해 ‘명성황후를 대화내용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눈부신 지성미로 얼굴이 빛나는 지식인이자 우아한 자태를 가진 귀부인’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어의였던 언더우드 여사도 ‘명성황후는 우아하고 근엄했다’고 표현했으며, 윌리엄 프랭클린 샌드는 ‘뛰어난 학문과 지성적인 강한 개성과 굽힐 줄 모르는 의지력을 지녔으며, 시대를 추월한 정치가이자 외교가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쓴 분’이라고 쓰는 등 명성황후가 총명한 판단력과 뛰어난 외교력을 지닌 교양 있는 여성으로 조국의 자주권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계속적인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이해하고 보다 발전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는 시간적으로 구

분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도 옛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오늘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오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앞으로 올 상황에 대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일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것을 아는 것은 오늘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흔히 지금 시대를 인문학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문화와 역사도 포함되어 있지요.

지역의 문화와 역사유적과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후손에게 전하는 것은 어제를 배워 오늘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보면 지역의 문화를 가꾸고 다듬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문화·역사유적의 보물창고’가 될 것입니다.



이난우 여주문화원장

白 次 瓷

백자를 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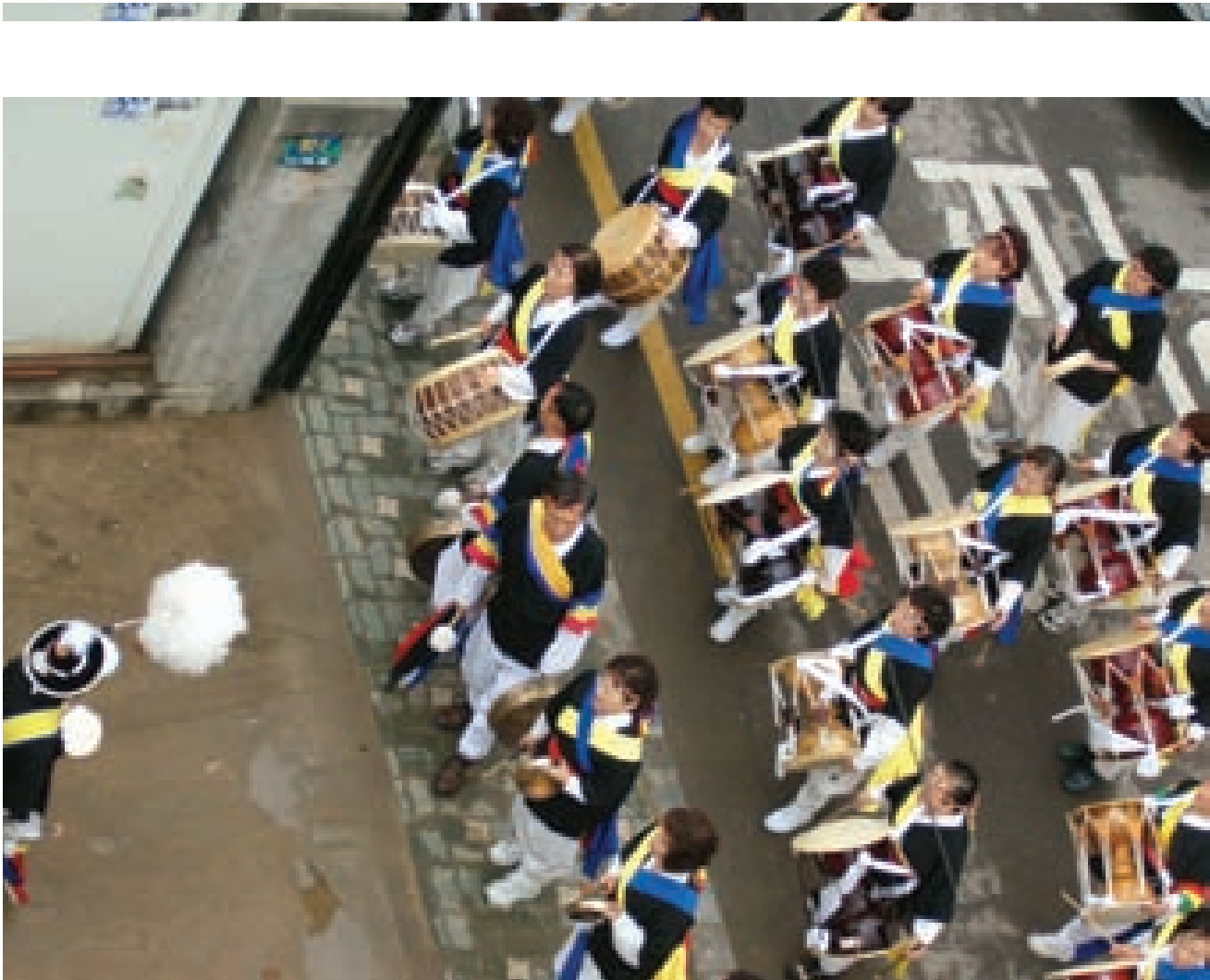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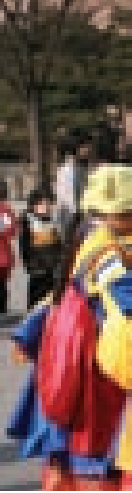
경철 광주광산문화원장
광주불교대학원장

하이얀
고운 곁은
천년千年 비껴 흐르는 선線
붓끝에 내친 난蘭이
향길 돌위 풍기는데
한마리
날으는 학鶴이
하늘 감아 휘돈다.

묻어 이는
타끌 속에
해엄치는 고달픈 삶
매만저 쓰다듬어
손길에 닿는 너는
하루의
지루함마저
씻어주는 공간空間이다.

낮은 집
지붕아래
꿈을 엮는 한 칸 방의
빈 구석 한 자리에
긴 한숨 한恨을 사려
그 숨씨
먼 훗날에 끼쳐
살아남을 몸매여.

대동놀이의 유형과 문화적 의미





전통사회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였다.

농민들은 농사를 바탕으로 두고 시간의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시간의 큰 마디, 즉 해(年)와 계절의 전환이라는 자연력(自然曆)상의 변화나 파종·성장·수확 등 농사력(農事曆)상의 전환점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른바 명절을 배치하였다. 명절은 생업을 영위하는 일상적인 시간과는 달리 생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일상적 시간으로서 대부분의 축제와 대동놀이는 이때 베풀어지게 마련이었다. 대동놀이는 혼자 또는 몇몇이 모여서 하는 놀이와 달리 함께 모듬살이를 한다는 인연으로 맺어진,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 아래 이루어지는 놀이로서 비일상적 시공간에서의 주기적 연행, 공동체에 대한 강한 귀속감, 일상적 인간관계가 갖는 차별성의 약화 내지는 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전통사회의 지연공동체는 크게 보아 마을과 고을, 그리고 나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대동놀이를 전승한 지연공동체는 마을과 고을이다. 마을은 여러 집들의 결합체이며 고을은 여러 마을의 결합체이다. 다른 민속현상들과 마찬가지로 대동놀이 역시 마을과 고을을 기반으로 전승되었다. 따라서 대동놀이 역시 마을을 기반으로 전승된 놀이와 고을을 기반으로 전승된 놀이로 나누어진다. 나는 일찍이 이 점에 주목하여 전자의 형태를 '마을형' 대동놀이, 후자의 형태를 '고을형' 대동놀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마을형과 고을형은 다시 외집단(外集團)의 참여에 대한 개방 여부에 따라서 '열린마을형'과 '닫힌마을형',

'열린고을형'과 '닫힌고을형'으로 나누어진다. 닫힌마을형은 한마을 또는 두 마을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대동놀이로서 연례적으로 행해지지만 열린마을형은 하나의 중심마을과 여러 개의 주변 마을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의 놀이로서 연례적이기도 하지만 비연례적인 경우가 더 많은 대동놀이이다. 열린마을형의 중심마을은 대개 그 지역에서 행정, 교통, 상업, 군사 등의 중심지이게 마련이다.

고을형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고을형 대동놀이의 중심지는 그 고을의 치소(治所)가 있는 읍치이다. 지방관이 거주하면서 고을을 다스리는 지역인 읍치는 그 고을의 정치, 문화, 상업, 교통, 군사 등의 중심지로서 고을형 대동놀이의 중심이 된다. 평시에는 읍치를 구성하는 마을들만이 참여하는 닫힌고을형의 대동놀이를 하다가 특별한 계기. 예컨대 풍년이 들어 시절이 좋거나 가뭄이나 역병으로 시절이 나쁠 때, 그리고 무언가 기념할 일이 있을 때에는 고을에 소속된 거의 모든 마을이 참여하는 열린고을형의 초대형의 대동놀이를 벌인다. 따라서 열린고을형은 비연례적이게 마련이다.

한편 놀이의 방식에 따라서도 대동놀이의 유형을 가려볼 수 있다. 대동놀이는 경쟁의 유무에 따라서 경쟁적인 놀이와 자족적인 놀이로 나눌 수 있다. 강강술래나 뾰족다리싸움, 그리고 지신밟기 등의 놀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동놀이는 경쟁적인 놀이, 즉 편을 갈라서 승부를 겨루는 '편싸움'들이다.

이제까지 확인된 편싸움 형식의 대동놀이를 겨루는 방식을 기

준으로 유형화하면 ‘당기기형’, ‘밀기형’, ‘밀고 당기기형’, ‘먼저 도달하기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당기기형의 놀이로는 줄다리기가 유일하다. 줄다리기는 양편이 서로 놀이의 도구인 줄을 당겨 자기편으로 끌어오으로써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이다. 여기에 비해서 밀기형의 놀이는 상대편을 밀어붙임으로써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이다.

여기에는 팔매싸움·동채싸움·쇠머리대기·고싸움·햇불싸움·박시싸움 등의 놀이가 해당한다. 이들 놀이는 돌팔매·동채·쇠머리·고·맨몸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편과 접전을 벌이고, 마침내 상대편을 밀어붙임으로써 승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장 격렬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놀이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밀고 당기기형’은 상대편을 밀어붙이는 요소와 끌어당기는 요소가 복합된 놀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경북 영천 지역에서 전승되었던 곳나무싸움이 유일하다. 곳나무싸움은, 쌍줄을 결합시키는 데 사용한 곳나무를 뺏고 빼앗기며, 숨기고 찾는 놀이이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육박전과 추격전이 수반된다. 놀이의 공간은 공동체의 전 공간이 되며 놀이의 시간도 10여일이나 되는 장대한 스케일의 놀이이다.

한편 먼저 도달하기형의 놀이로서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가야의 유민들이 매년 7월 29일에 수로왕이 허황후를 맞이하던 것을 재현하는 축제의 자리에서 행해진 경주(競舟)와 경마(競馬)이다. 내용으로 보아, 수상(水上)에서는 가벼운 배로 지상에서는 빠른 말로 겨룬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뒤의 경쟁적 대동놀이처럼 집단적으로 편을 갈라서 한 놀이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 영덕군 남정면의 달봉뛰기

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달봉뛰기는 다른 경쟁적 대동놀이와 마찬가지로 축제의 중심적 연행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편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놀이방식으로 보아,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유일한 ‘먼저 도달하기형’의 놀이이다. 달봉뛰기의 놀이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달이 떠오르는 산꼭대기로부터 능선을 따라 산 아래 마을의 어귀에 있는 당나무까지 늘어선 다음, 차례대로 앞 사람에게 달봉을 던져 먼저 당나무에 달봉을 대는 쪽이 이기는 놀이로서, 늘어선 사람들이 뛰지 않고 오로지 제자리에서 앞 사람에게 던지기만 할 뿐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계주와는 구별된다.

대동놀이는 어김없이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등의 명절에 행해진다. 이들 명절은 계절 또는 생업의 전환점에 자리 잡고 있는 축제의 시기로서, 일년이라는 시간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명절이 축제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은 명절에 행해진 대동놀이가 곧 축제의 놀이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축제의 중심적 연행으로 자리 잡고 있던 대동놀이의 문화적 의미는 축제의 의미와 겹쳐질 수밖에 없다. 하비 콕스(H. Cox)는 비일상적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구성요소를 대국성(對局性), 과잉성, 축의적(祝儀的) 긍정성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상과 분명하게 단절된 시공간에서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일상과 달리 과잉된 음주가무와 연행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살아 있음을 긍정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 축제인 것이다. 빅터 터너(V. Turner)는 일상과 축제(제의)의 관계를 구조와 반구조(反構造; anti-structure)의 관계





로 보고 차별을 기조로 하는 일상의 제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수립하는 축제적 질서 속의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커뮤니티스(communitas, 大同)라고 명명한 바 있다. 커뮤니티스 속에서 인간은 성과 연령,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 빈부, 힘의 강약 등의 차별을 넘거나 뒤집어서 축제적 평등을 구가하는 것이다. 대동놀이는 바로 이와 같은 문화적 의미를 축제와 공유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놀이와 같은 반열에 놓일 수 없다.

대동놀이의 축제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음은 동해안의 어느 마을에서 여인이 늙은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갓 시집은 새댁 시절에 마을에서 줄다리가 벌어졌다. 새댁인 터이라 잠시 망설이다가 '줄판'에 나가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사람들 틈바구니로 간신히 손을 밀어 넣어 한창 줄을 당기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줄을 당기던 남정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시아버지였다.

그리고 보니 시아버지의 사타구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줄을 당기고 있었다. 새댁은 어쩔 줄 몰라하는데 시아버지는 씩 웃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줄을 당겼다. 이에 새댁도 '줄을 당기는 판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모양이다' 싶어 개의치 않고 열심히 줄을 당겼다.

이게 어디 평시에는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어렵기 그지없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차별은 줄을 당기는 현장에서 무너지고 대동의 정신만 살아 있는 것이다.

이런 축제정신은 남녀별로 편을 갈라서 벌이는 호남 지역의 줄다리기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줄판에서 강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미혼의 남성은 여성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혼의 남성들로만 편을 구성한 남성 편은 아무리 용을 써도 여성 편을 이기기 어렵다. 따라서 사정을 봐주는 것은 여성이다. '이번에는 한 번 저주지' 하면서 아량을 베푸는 것은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인 것이다.

이처럼 일상의 가부장적 권위가 부정되고 여성의 권력이 보장되는 역전의 상황이야말로 줄다리의 축제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이 이룩한 문화와 문명은, 인간의 본원적 생명력인 신명을 억압하는 것을 기조로 성립하였고, 억압의 정교화를 통해 문화를 전개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이렇듯 일상화된 억압 속에서 억눌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통풍구가 바로 축제였고 대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는 세상, 즉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장이 축제였으며 대동놀이는 바로 그 축제의 고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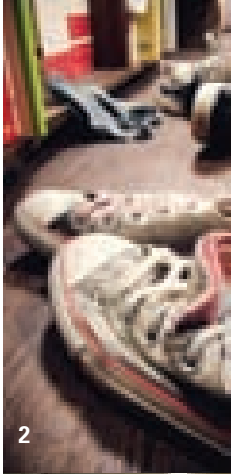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축제, 진정한 대동놀이를 잃어버리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축제와 존재의 자각 보다 존재의 상실에 기여하는 놀이문화에 빠져 있다. 나와 세계를 긍정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던 참된 축제와 대동놀이가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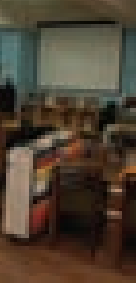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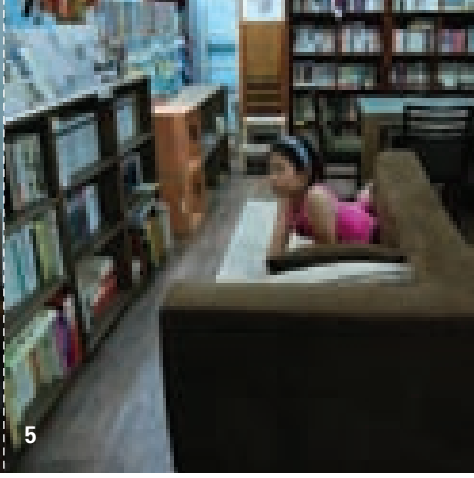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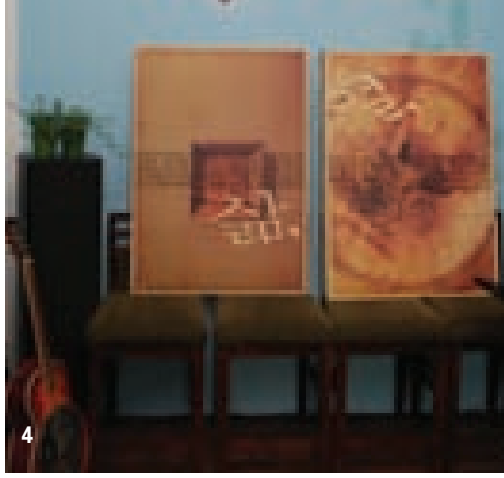
한양명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

건물 모퉁이를 돌면 이상한 나라에 올 수 있죠 자, 주문을 외워보세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찾아서

1. 비에 젖은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발을 말리는 중
2.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이 귀엽기만 하다
3. 이상복 전경
4. 모퉁이에는 공연장으로 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5. 한 아이가 들어오더니 제집처럼 소파에서 척 놓는다
6. 피노키오 목각인형이 금방이라도 말할 것만 같다
7. 100여명의 참석했던 평화콘서트
8. 이상북에서 열린 7월의 문화제





책이 한 권 필요하다. 장마철인데 서점 가기도 번거롭다. 더욱이 인터넷에서는 10% 할인에다 적립까지. 인터넷 창을 열고 클릭, 클릭. 요즘에는 오전에 책을 주문하면 오후에 받아볼 수 있다. 간편하다. 그런데 가만. 요즘에는 어떤 소설이 재미있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나 이용자들의 고객평에서나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까다로운 내 입맛을 만족시키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판된 책이 많은지, 책에 대한 사념이 꼬리를 물어, 동네의 헌책방에 머문다. 그곳은 어떻게 되었을까. 낡은 책내음이 가득했던 좁은 공간. 정말 궁금해진다. 그곳은 어떻게 되었을까.

엘리스의 계단을 따라가면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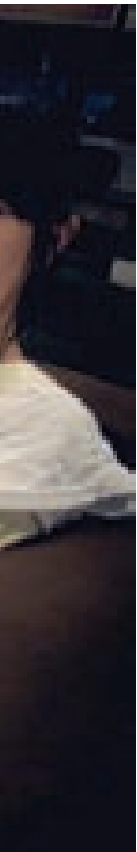
응암동의 한 건물 앞.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나칠 법한 곳이다. 건물을 끼고 도는 계단이 그려진 간판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말하는 토끼를 따라 동굴로 들어가던 때와 묘하게 겹쳐진다. 엘리스가 된 기분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그런데 어라, 귀퉁한 냄새가 가득한 헌책방이 아니다. 엘리스가 2009년 서울에서 홀연히 이곳으로 걸음을 옮겼다면 그녀도 이렇게 슬쩍 입꼬리를 올려 웃었을까.

이곳은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이하 이상북)으로 불린다. 지하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꽤 넓은 공간이 정체를 드러낸다. 중앙의 나무탁자 몇 개, 그리고 책장. 이 공간은 그렇게 간단히 소개가 된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예전 만화애나 나오던 미술가방처럼, 이 작은 곳은 무한의 공간이 된다.

책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지점

이곳의 주인장 윤성근 씨는 워낙에 책이 좋았다. 이 공간을 채운 3천여 권의 책은 그가 가진 책에서 시작되었다. 책이 좋았던 청년은 책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 서울만 해도 가로수길이나 홍대 등 젊은이들의 거리엔 흔하디 흔한 게 북카페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게 유행이 될 정도. 이곳은 단순히 그런 곳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의 표현대로 책의 무덤 같은 어두침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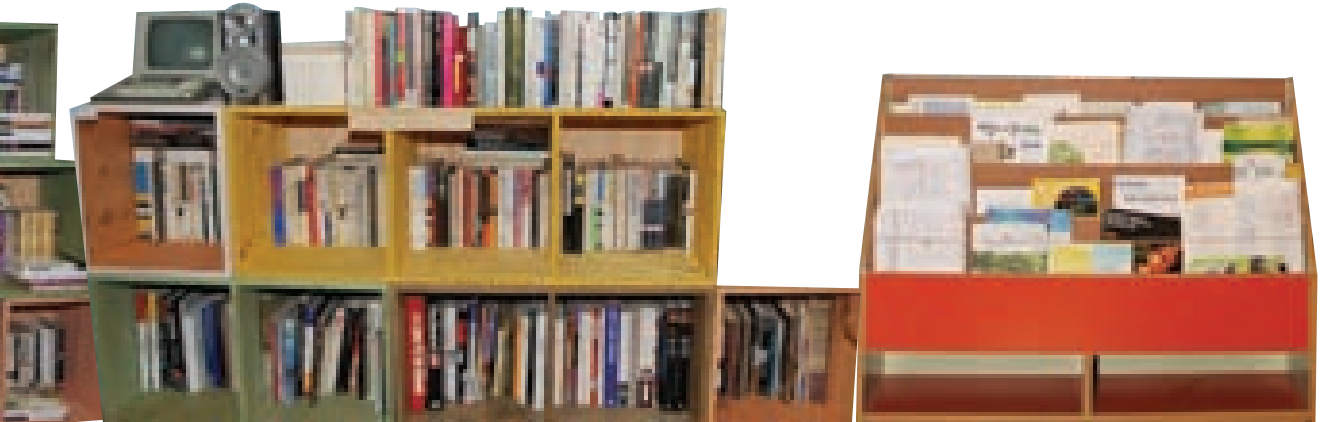


“이 근처에 씨앗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 공간을 씨앗학교 근처에 열게 되었습니다.
교육적으로 연계가 되게끔요. 그래서 이곳에서 교육도 하고 놀이도 하곤 합니다.
유년시절을 생각해보면 체벌의 역사였죠.
시험보고 맞고, 숙제하고 맞고...
그런 학교생활이 즐거웠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성장해서 본 대안학교는 정말 꿈 같았어요.”



귀퉁한 냄새를 풍기는 헌책방도 아니다. 이곳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근처에 씨앗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었
 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 공간을 씨앗학교 근처에 열게 되었습니다.
 교육적으로 연계가 되게끔요. 그래서 이곳에서 교육도 하고 놀이도 하곤 합니다. 유년시절을
 생각해보면 체벌의 역사였죠. 시험보고 맞고, 숙제하고 맞고...그런 학교생활이 즐거웠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성장해서 본 대안학교는 정말 꿈 같았어요.”
 이상복은 책에 대한 애착과 학교에 대한 아쉬움의 소산인 셈. 그래서 이곳은 그의 바람대로 아
 이들의 공간이다. 학교가 끝나고 갈 곳 없는 아이들, 학원 같은 건 엄두도 못 내는 아이들이 자
 유롭게 들러 턱을 괴어 책을 보다가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다.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머물며 숙제를 하고, 교육의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의 세미나실이
 되고, 음악이 좋은 사람들의 공연장이 되는 곳. 동네 사랑방이 이랬을까, 동네 중앙에 자리 잡
 은 정자가 이랬을까. 이곳은 여러 가지 주제로 사람들이 책과 함께 모인다. 이곳에서 만들어
 는 갖가지 에피소드들은 책의 무궁무진한 세계와 닿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앞으로 이곳이 철학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요즘 사람들에게 철학이 부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책방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윤성근 씨다.
의견을 나누고, 감성을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나누며 철학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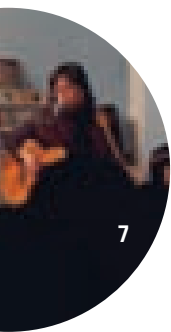
매일 새롭게 쓰는 헌책방 이야기

“저는 앞으로 이곳이 철학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요즘 사람들에게 철학이 부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책방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윤성근 씨다. 의견을 나누고, 감성을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나누며 철학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소년문화제를 통해 아이들은 소통하고, 각종 세미나, 때로는 잔잔한 기타소리까지 공유하며 즐거운 헌책방놀이는 계속되고 있다.

많은 것이 되도록 빨리, 되도록 많이 변하는 것이 미덕인 요즘이다. 우리가 알던 헌책방의 모습과 같지만 또 다른,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동화의 한 챕터 같은 이 공간에 한 발 놓아보는 것은 어떨까. 없는 책 말고 다 있는 책방에, 없는 일 빼고 다 일어난다는 이상한 공간에 귀를 기울여. 쿵쿵쿵 엘리스가 쫓았던 말하는 토끼가 인도했던 세계만큼이나 다채로운 이곳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곳으로 www.2sangbook.com)



7



8

인디음악은 흥대에서만?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모여 놀기 시작했다! 젊은 국악연대

명절 오후면 친척들도 하나들 떠나고 텅 빈 집안에는 텔레비전만이 물끄러미 켜져 있곤 했다. 어른들이야 한바탕 소동에 진이 빠져 저마다 팔을 괴고 누워있기 일쑤였지만 활력 넘치는 꼬맹이들에겐 텔레비전만이 소일거리였는데 겨우 하는 프로그램이라고는 판소리 완창, 사물놀이 등이었다. 어린 마음에 가요가 나오지 않는 텔레비전을 얼마나 원망했던지.

요즘 세대에게 있어 국악의 기억은 지루함의 파편뿐일까. 정체된 국악에 대한 기억을 잇는 행보가 이곳에서, 지금 시작된다.



판소리뮤지컬이라고? 그게 뭣이당가

별다른 것 없는 풍경이다. 객석에는 사람들이 공연을 기다리고, 조명이 채 켜지지 않는 무대는 서늘한 어둠이 곧 시작될 공연을 기다린다. 곧 무대가 열린다. 이들을 주목하게 되는 건 바로 여기부터다. 배우들의 입에서 구성진 우리 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가!

극의 흐름은 다른 뮤지컬과 다를 바 없지만 이들의 목소리에는 분명, 텔레비전에서나 들었던 그 구성진 가락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는 과





자이야기다. 꽃게랑, 오감자 등 우리가 익히 아는 과자의 이름을 한 배우들이 2009년식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셰익스피어의 원작과는 달리 이들은 시종 유쾌하고 영똥하다. 더욱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락의 흥겨움에 얼썩 소리가 절로 난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며 어색하기만 한 했던 이들의 창법(?)에 관객들은 점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얼썩 절썩 소리가 절로 난다. 우리의 가락의 힘은 이렇듯 ‘흥’이다. 그 옛날 마당극에서처럼 관객과 배우의 호흡이 뒤엉키며 공연 내내 흥을 만들어낸다.

이 시대의 국악을 꿈꾸는 젊은이들 젊은국악연대

이 공연은 ‘타루’의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라는 판소리뮤지컬이다. 타루가 누구이고 하니 젊은국악연대 중의 한 팀. 보통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소위 이 ‘바닥’에서는 유명세를 치르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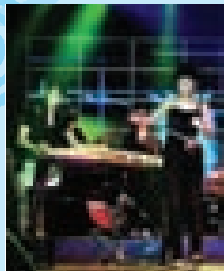
이 시대의 국악을 꿈꾸는 젊은이들인 셈. 이들의 모여놀이 프로젝트는 올해로 두 번째. 가곡과 줄, 풍류 등 전통음악과 새로운 창작음악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타루 외에도 여러 팀들이 공연을 올렸다. 젊은국악연대의 행보는 ‘정가악회’의 〈정가악회, 중남미문학과 만나다〉로 시작되어 ‘국



악뮤지컬집단 타루'의 <관소리, 애플그린을 먹다>, 한국의 전통장단을 토대로 세계인들이 공감할 월드뮤직을 선보이는 '이스터녹스'의 <한국의 장단위에 쓰는 새로운 신화>, 세계무대를 향하는 프로젝트시나위의 신명나는 콘서트 <JOY>, 현대적인 연희극의 창작을 지향하는 '연희집단 The광대'의 <양반 나가신다>, 일렉트로닉 국악을 선보이며 젊은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키네틱국악그룹 엠'의 <엠's 라틴아메리카 음악노트>로 이어진다.

젊은국악연대, 공유를 넘어 대안으로

이들이 모인 이유는 간단 명쾌하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국악을 하며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는 것이 그것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만의 색을 지닌 음악을 하던 젊은이들이 모여 여러 소통으로 국악으로 이 시대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음악의 진정한 힘과 예술의 의미를 시대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 '모여놀이 프로젝트'는 이외에도 각 팀별 음악작업 교류와 더불어





젊은국악연대 모여놀기프로젝트 2nd MOYEONOLGI PROJECT 2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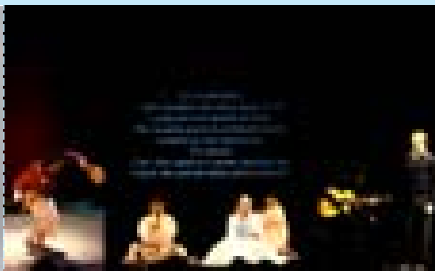
국악계 논란 및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중들에게 접근할 예정이다.

또한 관객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공연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젊은국악연대의 찾아가는 상설 공연과 이들의 문화학교 등을 만들 계획이고 해외공연 유치와 국제공연 문화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국외활동을 통한 국악의 저변확대를 노린다.

젊은 국악지원센터를 마련해 신생되는 국악팀을 위한 운영시스템 및 노하우를 지원하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단순히 한번 공연하고 흩어지는 일회성 모임이 아닌 셈이다.

이들은 이 시대에게 국악을 보여주고 들려준다.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고 펼쳐보인다. 고루하게만 느끼는 국악의 저변 확대를 통해 국악의 부흥을 꿈꾼다.

자, 그런 당신에게 아직도 국악이 지루하고 고루한 것인가, 이들은 끊임없이 묻고 답을 요구한다. 그 답은 이제 우리가 일단, 귀 기울인 후 내놓을 차례다.



문화원 탐방

목포문화원

언제든 출항할 준비로 임하는
청년 같은 문화원, 목포

목포문화원
목포문화원

목포문화원



목포는 항구다. 목포에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도 '목포' 하면 떠올리는 것은 바로 목포가 '항구'라는 것일 것이다. 이곳은 땅을 떠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돌아움이 있는 도시이다. 절절한 노래가 울렸던 곳이니만큼 애환과 향수도 가득한 목포. 이 도시에서 문화원은 어디쯤에 다다라 있을까. 목포의 문화원을 찾아가 봤다.



요즘 목포에는 무슨 일이?

목포는 요즘 시끌벅적하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들고잡이 많아 복잡한 이 도시에 무슨 번잡한 일이 생겼길래 이리도 복잡복잡 소란한 것인지 그 사정을 보기로 했다.

이유인즉 바로 목포의 자유시장 때문이란다. 재래시장의 존폐위기는 비단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랫동안 재래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에 대한 대안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에서 함께 할 고민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포문화원이 6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게 되었다. 그래서 목포문화원에게 이번 해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을 꾸려가는 데 사활을 걸게 되었다.

상상에서 현실로, 목포의 문화는 문화원에서

김석철 목포문화원장은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았다. 퇴직 후 사정이 여의치 않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교편을 잡은 내내 계획했다. 그러다 갑자기 문화원 이사 자리를 덜컥 맡게 되었다고.

“문화원의 이사가 되고 부원장이 되고 그러다가 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그랬던 퇴직 후의 인생은 몇몇 아이들을 후원하며 지내는 일이었죠. 후배의 부탁이 시작이 되어

문화원과 연을 맺었던 것이 나중에는 부원장이 되고 이사님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원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기만 했지만 한두 아이들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지역의 아이들, 나아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죠.” 문화원이라는 데가 권력과 재력이 모이는 곳이 아님은 지역의 문화원장이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 교직에서 봉사한 삶이 문화원으로 옮겨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그의 소박한 상상이 씨앗을 뿌려 어느 정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셈이다. 한두 아이 뿐 아니라 목포 전체를 향해 움직이는 문화원장이 되었으니.

목포문화원 이모저모

목포문화원은 골목길 답사로도 유명한 문화원이다. 목포에서 평생을 보낸 김석철 목포문화원장은 목포 곳곳에 살아있는 골목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평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고. 그 마음이 목포의 골목길 답사로 이어졌다. 골목길 답사는 2주에



3

목포문화원
목포문화원

목포문화원



4

1. 목포문화원 전경
2. 문화원식구들에게는 서로가 진짜 가족만큼이나 살갑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는 문화원 식구들
3. 한가위 민속한마당 민요교실 공연 모습(9월)
4. 어르신 문화학교 공연모습(중앙시장)
5. 사투리 구연대회(12월)
6. 김석철 목포문화원장
7. 모충서예회호대회(11월)
8. 문화강좌 중 소리를 허다 활짝 웃는 문화원 회원



문화원이라는 데가 권력과 재력이 모이는 곳이 아님은
지역의 문화원장이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 교직에서 봉사한 삶이 문화원으로 옮겨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그의 소박한 상상이 씨앗을 뿌려
어느 정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셈이다.
한두 아이 뿐 아니라 목포 전체를 향해
움직이는 문화원장이 되었으니.

한 번씩 진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목포문화원은 매년 2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문화유적답사를 비롯해 한가위 민속한마당, 모충서예회화대회, 제14회 전라도사투리구연대회 목포해양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규모가 큰 다른 문화원에 비하면 연중행사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군 단위 문화원보다 이런 시 규모의 문화원의 사정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건 조그만 도시에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 그래서 목포문화원이 집중하는 건양적인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내실을 채워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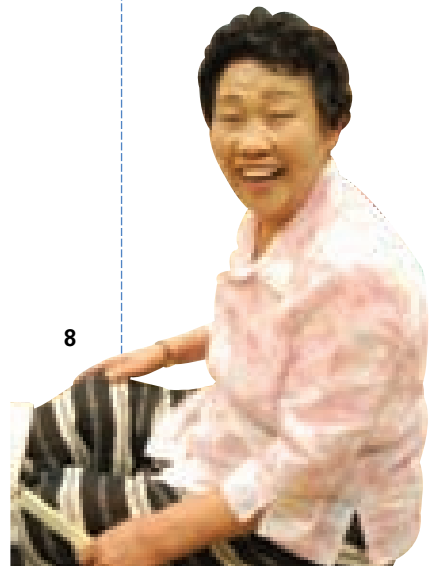


목포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원호'

"제가 2~3년만 더 바짝 열심히 하려고 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정도 되면 문화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다 보니 행정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또한 목포의 시민들에게 문화란 것을 전파하는 데 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더욱 고민합니다, 문화원이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전통 뿐 아니라 현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지요."

그의 포부는 허황되다. 그러나 눈부시다. 김원장과 문화원 식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마음들이 끝이 없다. 목포의 문화를 끌어갈 '문화원호'의 항해를 큰 기대와 함께 바라본다.



우리 문화원에 벌써 이런 일이?

이번 해 목포문화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에 도전했듯이 이미 지난 해 이 사업을 진행한 문화원이 있다. 지난 11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08년 강릉 주문진시장도 들여다 보자

강릉문화원

문전성시_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문전성시_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업적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시장을 문화체험 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08년 강릉 주문진시장과 수원 못골시장이 선정되었다.

'문화로 펄떡이는 주문진시장'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주문진시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강릉시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 사업은 총 10억(1차 6억/2차 4억)으로 진행된다.

'펄떡이는 주문진시장' 프로젝트는 주문진시장에서 생활하는 상인들이 시장을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주체이며, 동시에 주문진시장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문진을 찾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는 주문진시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주문진 시장해설사 | 골목골목 주문진시장 팸투어

전국 최초로 생긴 '주문진 시장해설사'. '주문진시장 팸투어'를 통해 주문진시장을 다녀간 20여개 문화원, 2,000여명의 문화가족들에게 주문진시장의 형성과정과 문화, 인근 관광지 등을 친절히 설명해주어 주문진시장에 대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꽁치극장 | 오징어갤러리 | 복어갤러리

주문진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이름이다. 시장의 찌투리 공간들이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싱생쇼 | 극단 놀래미

주문진시장 상인들이 직접 만드는 '싱생쇼'는 일정 시간 모든 상인들이 시장음악에 맞춰 흥겨운 율동을 하고 상인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극단 놀래미'가 창단하였다.

오늘은 주문진시장 가는 날 | 상인역량강화교육

평소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는 관내 초등학교들이 주문진시장을 찾아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난 시장 곳곳을 둘러보았으며, 상인들은 직접 고객이 되어 빨난 고객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심오섭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합천문화원, 중국 곡부시 문화유산관리위원회와 상호문화교류 협의 차 방문





합천문화원의 중 사업인 결연사업과 해외문화유적 탐방사업 계획에 의거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합천문화원과 중국 곡부시 문화유산관리위원회와 상호문화교류 협의 차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회원 30명을 신청 받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합천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집결하여 6월 22일 1시에 인천으로 출발하였다.

출발하기 전 심의조 합천 군수님의 격려와 아울러 여러 사람 가족들의 배웅을 마치고 묘산과 야로를 경유하면서 참석자들을 모두 태우고 88고속도로를 거쳐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7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비행기가 인천을 출발하여 11시 40분에 제남공항에 도착하여 위생검역소의 검역을 마친 후 버스로 40분간 이동하여 새벽 2시에야 금도호텔에 도착하여 숙박했다.

첫째 날인 6월 23일 조식 후 태산등정을 위하여 버스를 이용하여 태산시로 이동하고 있는 동안 가이드의 중국지역에 관한 약간의 소개가 있었는데 면적은 560만km²로 인구는 통계상 13억이지만 실제로는 16억이 넘으며 56개 민족으로 한족이 주를 이룬다고 하며 북쪽보다는 남쪽이 잘 살며 세계 10대 부자 중에는 중국 사람이 4명이 들어가며 10대 거지 중에도 4명은 들어간다고 한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말, 글, 음식이 같지 않으며 산동성 지방에는 눈이 없으며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산동성 출신 인물로는 강태공, 공자, 장자, 안자, 맹자, 안징경, 손문, 제갈공명, 국자, 송강 등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는 설명을 듣는 동안 태산시에 도착하여 10시 30분에 태산등정을 위하여 천외촌에서 25인 버스로 중천문까지 와서 중천문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남천문까지 올라가 남천문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천국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승선방이 있고 여기서 20분 정도 오르면 태산의 정상인 옥황정이 있다.

우리일행은 낙오자 없이 모두가 옥황정 정상(1545m)을 다녀왔다. 특히 88세의 이봉후 할아버지도 정상을 다녀와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다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하산하여 해산풍각 식당에서 중국식 식사를 마치고 대표를 견학했는데 대표는 송천황전(태산신을 모신곳)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옥황정에 봉선의식을 올리

곡부시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유산을 마음껏 둘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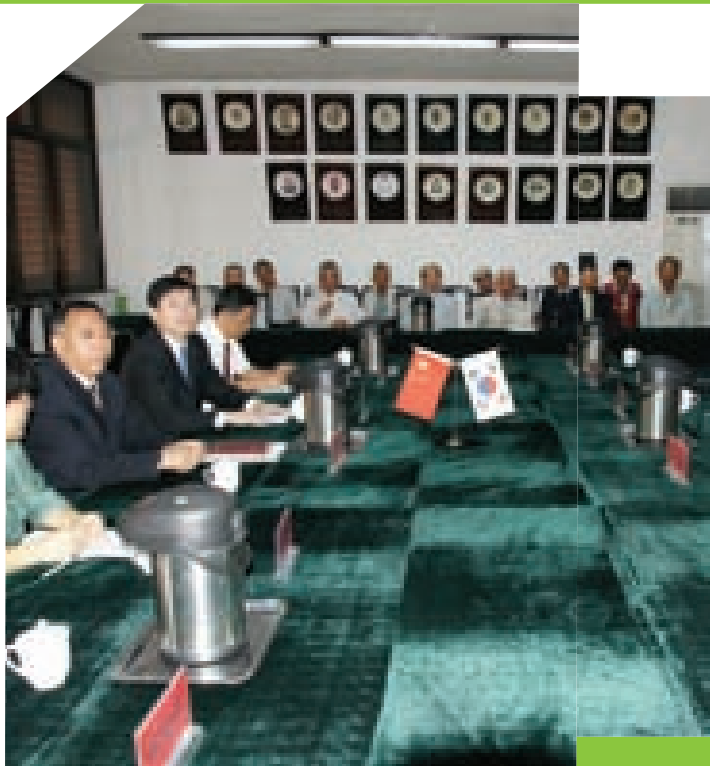
뜻있는 방문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양국 교류를 통해 합천군외기관사회단체가

곡부시를 방문할 시 큰 환영으로 맞을 것이며,

특히 교육 예술 등 상호 협력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 한다고 하였다.



기 이전에 대묘의 성전에서 먼저 봉선의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태산시 견학을 마치고 오후 3시 곡부시로 이동. 켈리빈사라는 호텔에 투숙했다.

3일째인 6월24일에는 9시 문화교류 협의 차 곡부시를 방문하였는데 방문 장소에는 곡부시 문화유산관리위원회 부주임 공덕평, 곡부시 문화유산관리위원회 사무실 주임 맹파, 곡부시 인민정부 외사과 우호협회 부회장 장계선, 곡부시 인민정부 외사교무과 주임 안경산, 곡부시 인민정부 외사교무과 직원 곽연자 등 여러분이 참석하여 공덕평 부주임은 인사말에서 합천문화원 이병생 국장 외 관계자 여러분이 곡부시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유산을 마음껏 둘러보고 뜻있는 방문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양국 교류를 통해 합천군외기관사회단체가 곡부시를 방문할 시 큰 환영으로 맞을 것이며, 특히 교육 예술 등 상호 협력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 한다고 하였다.

합천문화원 측에서는 이병생 사무국장이 참석자 29명의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이 있었는데, 인사말에서 합천문화원 30명의 일행이 곡부시를 방문한데 대하여 공덕평 부주임 외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한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 아울러 합천문화원에 대한 소개와 문화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2009년도 합천군에서

개최하는 대야문화제 행사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권동술 외 여러 사람들이 중국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도 하였다. 선물교환이 있는 후 정문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곡부시 방문일정을 모두 마쳤다. 9시 45분쯤 금성옥진(명대 건축물)이라는 입간판이 걸린 공묘를 견학하였는데 북경의 고궁, 태안의 대묘와 더불어 중국 3대 건축이라 불리는 공묘는 노나라의 애공(哀公)이 공자 사후 1년에 건설한 사당이다.

춘추시대의 저명한 사상가, 정치가, 교육가, 유가학파의 창시자인 공자를 제사지내는 곳인 이곳은 처음에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의하던 행단에 대성전을 세운 것으로 시작해 그 후 역대의 황제가 기부나 회사를 계속하여 현재의 규모는 명청대에 완성된 것이라 한다. 중국 각지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공묘가 있지만 이곳 곡부의 공묘는 규모가 제일 큰 건물이다. 전체의 길이가 약 1km나 되며 면적은 약 22만m²로서 전체 건물의 방의 개수가 466개에 이른다.

○ 공림(孔林) : 곡부의 북쪽으로 1.5km 떨어져있는 곳에 있는 공자와 그 지손들이 묻힌 묘소이다. 이곳의 묘가 약 20,000기, 담장둘레만 7.25km로 세계 최대의 씨족묘지이다. 곡부시의 북쪽을 따라 1km정도 숲길을 지나면 지성림(至聖林)이라는 현판이 걸린 공림의 대문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공림이 시작되는데 공림의 이름은 수많은 묘비의 비석이 숲을 이



루고 있기 때문이다. 공림의 정문인 지성림방(至聖林坊)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림문(二林門)까지 떡갈나무 숲이 길게 이어진다. 이림문에서 왼쪽으로 가면 수수교(洙水橋)가 있고 이 다리의 북쪽 숲 가운데로 들어가면 공자 축제 시에 향단을 설치하는 곳인 향전(享殿)이 있다. 이곳은 또 해방전쟁 당시 중국의 군사 지도자였던 주덕(朱德) 총사령관이 중요한 군사 회의를 연 곳이기도 하다. 공자의 분묘는 향전 뒤쪽에 있는데 “대성지성 문선왕묘(大成至聖 文宣王墓)”라고 써어져 있다. 명성에 비해 그리 화려하지는 않고, 돌보지 않은 듯 풀이 우거져있으며 무덤 가운데 거목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공자의 묘를 돌보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대사상가인 공자의 무덤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중국인들의 신념 때문이다. 또 공자의 묘 옆에는 공자의 아들 리(鯉)의 무덤이 있으며, 그 앞쪽에 공자의 학문을 계승한 손자 자사(子思)의 묘가 있다. 이 같은 묘의 배치는 공자가 아들들 데리고 손자를 안아주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 공부(孔府) : 공묘의 오른쪽에 위치한 공부는 공자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장원으로 1038년에 세워졌다. 공부는 또 연성공부(衍聖孔府)라고도 불리며, 현재의 모습은 명, 청 양대에 걸쳐 완성된 것이다. 이곳은 다소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며 서로(西路)에는 객실, 동로(東路)에는 공씨 가문의 묘지가

있고 중로(中路)에는 전반부의 관공서와 후반부의 주택과 화원으로 나뉘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면적은 16만m²에 이르며 방은 463개나 될 정도로 광대하고 화려한 장원으로 당시 공씨 가문의 권력과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오후 14:00시경 추성시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의 역사는 3천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예로부터 “추노성지(鄒魯聖地)”라 불리기도 한다”. 맹자의 고향으로 맹묘, 맹림, 맹부의 삼묘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공자와 진시황, 사마천, 이백 두보 등 대 사상가와 시인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시와 문장을 남기기도 했다.

- 맹묘(孟廟) | 제녕시에서 동남쪽으로 70km, 곡부에서 25km 떨어져 있는 추성현 내에 있는 맹자의 사당이다.

- 맹부(孟府) | 아성부(亞聖府)라 불리기도 한다. 맹부는 맹자와 그 가문이 거주하던 곳이다. 공부와 비교해 봤을 때 규모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며 대당(大堂)을 중심으로 앞쪽은 관아, 뒤쪽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맹림(孟林) |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로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와 그 자손들의 묘지 군락이다.

차판암 합천문화원장



수려한 남도의 농촌마을 영광 효동 문화역사마을 준공식 개최



수려한 남도만의 전통생활이 잘 보존된 농촌생태마을인 영광 효동마을이 5년여 사업조성 기간을 통해 문화역사마을로 새롭게 태어난다.



『**효동 문화역사마을**』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금까지 30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 / 지방비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역사연수원 신축, 윗뜸화장실 신축, 아다다의 집 복원, 마을돌담길 조성, 연장방아·빨래터 복원 등 마을경관개선 사업과 농촌테마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추진됐다.

특히 문화역사연수원(638㎡)은 숙박, 숙식, 체험, 교육 등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되어 수익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효동 문화역사마을에서는 모시떡만들기, 역사담아 돌담쌓기, 김쌈체험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촌의 역사·전통·생활 테마형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득증대와 정주민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남도의 대표 문화역사마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영광문화원(류동현)**』은 지난 6월 29일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삼호리 효동마을에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제17호 영광 우도농악의 축하공연을 필두로 사업경과보고, 공로패수여, 신축된 문화역사연수원 개관 테이프커팅, 다과회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기호 영광군수, 신언창 영광군의회 의장 등 군내 주요 기관장과 효동마을 주민 그리고 마을을 찾은 체험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안성, 서천, 정읍문화원장과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축하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준공식 격려사(김이기 사무총장 대독)에서 '준공식은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축하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앞에 효동 문화역사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의 자리이기도 하다.'면서 마을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지자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성우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역사마을 담당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기념
2009구리 동구릉건원문화제
어가행렬





구리시에서 펼쳐진 한 편의 대서사시

구리 동구릉 건원 문화제의 일환으로 구리시가 주최하고 구리문화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 공동주관, 57사단이 후원하는 어가행렬이 재현되었다.

어가행렬은 조선시대 새 왕이 등극할 때 건원릉(태조 왕릉) 등 산릉에 참배하던 행렬을 재현한 것으로 조선왕조의 중요행사를 격식에 의해 기록한 각종 의례를 토대로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구성되었다. 행렬에는 총 365명이 참여하여 취타대를 필두로 말을 탄 기수, 임금의 가마인 어가, 왕세자, 문무백관의 행렬, 호위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왕으로 선발된 세종대왕 광평대군 21대손 이병길(54) 전주이씨 청년이사는 유구한 역사가 간직된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쁜 해에 왕 역할을 맡게 된 막중한 책임감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열정을 밝혔다. 또한 왕세자에는 동구중 학교에 다니는 흥안의 미소년 송승근(15)군이 뽑혔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송 군은 학창시절 특별한 체험을 했고, 새롭게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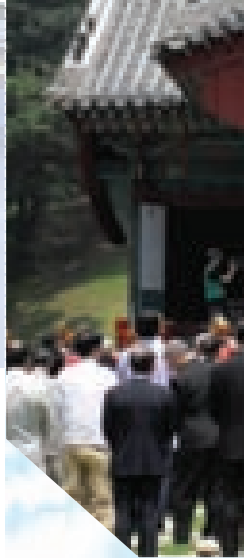
문무백관으로 대열에 참여한 전주이씨 종친들은 왕손의 자부심을 갖고 참여했다며 후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봉사단체와 기업 등에서 매년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구리지역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어가행렬에 합류한 경우도 있다. 호위군사로 참가한 57보병사단의 한 장병은 옛날 왕의 의장행렬 복장이 화려하고 위엄스럽게 보인다고 신기해했다.

출발 전 박영순 구리시장은 격려사에서 구리문화원과 참여한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말과,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 건원릉의 건국 기상을 이어받아 가장 경쟁력 있는 으뜸가는 도시를 만들자고 다짐했고, 곧이어 3번의 웅장한 대고 소리와 취타대의 연주를 신호음으로 어가행렬이 시작되었다. 행렬은 구리살내체육관을 출발해서 중앙웨딩사거리와 돌다리를 거쳐 동구릉에 이르는 3km 구간을 행진하였다.

어가행렬을 보기위해 나온 시민들은 “장관이다” “화려하다” “이런 행사를 휴일에 개최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비가 오는데도 모두들 수고가 많다”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자랑스럽다”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으며 폭우가 쏟아져 온몸이 젖어도 시종일관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어가행렬을 향해 환호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시대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을 홍보하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격년으로 어가행렬을 진행해 온 구리문화원 김문경 원장은 구리시 동구릉을 포함한 조선왕조 40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확정된 해에 진행된 어가행렬의 의미가 각별하다며 장대비가 퍼붓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뜻있고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리문화원 홍보단 **이유선** 기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된 날 - 동구릉에서 태조의 기신친향례 이루어지다.

27일 이른 아침 스페인 세비아에서 낭보가 전달 됐다. 제3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조선시대 왕릉 40기(북한 개성에 있는 태조의 정비 한씨의 제릉과 2대 정종의 후릉은 제외)의 등재를 확정지었다.

6월 하순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지난해 전문가 실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에서 조선 왕릉의 세계유산등재를 최종 권고 한바 있다.

이 시간 구리시 동구릉 내 건원릉에서는 조선을 건국한 1대 태조의 기신제가 황실의 법통을 이어받은 황사손(皇嗣孫) 이 원을 초헌관으로 하는 친행이 준비되고 있었다. 낭보를 접한 초헌관을 비롯한 제관, 참반원, 시민들 모두에게 기신제가 행해지는 당일 등재소식이라서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 왔다. 조상을 생각하며 기리는 기신제 날 세계 속에 우리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뜻 깊은 날이 된 것에 대해 들뜬 분위기였으나 제례는 침착하게 진행되었다.

2009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총 878건의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우리는 8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에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1997년에는 창덕궁, 수원 화성, 2000년에는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이 200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있다. 9번째 세계유산으로 조선시대 왕릉 40기가 등재 되면서 조선시대의 정신적 가치가 세계적 가치로 승화하는 순간이었다.

조선 최고 통치자의 무덤인 조선 왕릉은 1392년 제 1대 태조부터 1910년 제 27대 순종까지 518년의 세월을 이어 오면서 조상을 섬기는 유교적 전통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 온 현장 이라는데 더 높은 의미가 있다. 백성들에게 통치자와 어버이로서 자식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했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염원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다.

조선 왕릉의 전체 구성은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재실과 홍살문을 넘어 정자각에 이르는 참도와 수복방, 수라간은

조상을 기리는 기제사는 흥례가 아닌 길례로 다가온다.

조상을 만나 기쁘고 이웃과 함께 음복하며 조상을 기리는 즐거운 날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조선왕릉과 기신제를 세계인들이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와 견주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살아있는 자손이 아버이를 만나기 위한 준비공간이며 형식을 행하는 공간이다. 신이 구름문양의 신계를 넘어 정자각에 이르면 제사를 모시는 자손은 동계를 통하여 조상을 만나리 구름위의 정자각에 이른다. 산자와 죽은자의 공동 구역인 썸이다. 정자각의 뒷문을 넘어 신교에 이르면 이곳부터는 조상의 성역이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배려한 신의 공간인 사초지와 능상은 그대로 천상의 세계가 된다. 본래의 지형 조건을 훼손하지 않고 지형을 살린 자연이 사람들이 조성해 놓은 전각들과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 아름다움은 극치에 달한다.

죽음에서 장례를 치르고 아침저녁 상식을 올리고 곡을 하다가 졸곡에 이르르고, 27개월 쯤 '담담해 져야 한다.'는 담제가 끝나면 더 이상 조상을 잃은 슬픔은 거두어들인다. 조상을 기리는 기제사는 흥례가 아닌 길례로 다가온다. 조상을 만나 기쁘고 이웃과 함께 음복하며 조상을 기리는 즐거운 날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조선왕릉과 기신제를 세계인들이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와 견주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 곁에 세계유산을 두게 된 날 2,000여명의 기신제 참여자들은 문화강국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세계 속에 빛나는 조상과 우리의 가치를 보았다. 동구릉에서 맞이한 아홉 번째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료조사론

향토사 연구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

향토사자료의 조사와 수집정리는
결국 조사(연구)보고서의 작성으로
그 마지막 작업이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할 때 향토사연구는
역사연구논문과는 그 목적과 구성이 달라야 한다.
전문학자가 아닌 까닭으로 분석과 해석보다는
자료의 실체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향토사논문과 전문연구 논문 - 연구시각의 차이

지역사, 혹은 향토사는 단순한 지역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지역민을 주체로 하는 문화사·종합사·생활사”여야 한다. 즉 향토사 연구는 지역의 역사, 혹은 지역적 특성을 총합적으로 설명하려는 학문으로, 무엇보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 이 과연 무엇이었느냐에 관심을 경주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특수성은 민족의 문화 보편성 기반 위에서 나타난 것 이어야 하며, 그 양자의 비교 속에서 지역적 성격이 명쾌하게 설명되어야 존재가치(의미)가 선명해질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문화와 해당 지역의 문화가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특성이 있는가? 또 왜 그런 특성이 생겨날 수 있었던가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다면 지역사 연구의 내용은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가 지역민의 입장과 이해가 반영된 해당 지역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지역사 서술의식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① 지역사의 변천과정을 지역 주체적 입장의 체계적 정리 ② 지역 특수성을 시기와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이를 종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 지역의 주체적 시각

대체로 지역사는 모든 자료를 나열하기 보다는 ‘돌출’된 해당지역의 문화를 주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의 문화 시각으로 이들을 보게 되면 자칫 지역의 특수한 문화배경과 사정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지역사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천착이 지역문화연구자들의 진정한 연구 몫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들의 이해와 지원, 주변 여건들이 총합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또 여기에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나 갈등·타협의 양상이 연속되면서, 복잡한 자체 변용 과정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선입관과 편향적 인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만다면, 자칫 지역의 실제 모습과 의미를 축소하고, 연구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천사의 확인 작업은 조사방법론과 연구방법론이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변천의 인자나 유형, 그리고 지역 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마련되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성터유적' 과 관련하여 예시하여 보자. "성터유적" 에 대한 많은 연구·발굴조사 보고서들은 대개가 대학의 연구소나 박물관 같은 기관에서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 대부분은 유사한 항목구성으로 일관된다.

예컨대 지리개관, 연혁, 성곽과 성축구조, 시설배치, 출토유물 등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곽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런 내용을 통해 해당 성터의 시대나 구조, 성격은 분명하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지역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든다면 그 성터유적과 당시의 지방세력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성터와 주변의 유적들과는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 성곽의 기능과 운영의 실상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곳에서 살다간 인물들의 역사와 성터를 보는 주민들의 의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나아가 지명이나 설화 민담 속에 배인 성에 대한 지역문화의 모습들은 찾을 길이 없는지 등이다.

아마 이런 점들이 지역사회 연구자들이 성터유적을 대하면서 지녀야 될 궁금증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자료들이 망라되었을 때 성터유적은 해당지역의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유적으로 제 가치와 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지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지역 특성의 종합적 해석

지역적 특수성과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지역사회 연구의 기본 과제이자, 결론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성패가 곧 지역사회 이해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과 상대성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자는 객관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의 해당 시기, 해당 분야 연구 성과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고, 그 보완성 위에서 지역 자료가 어떤 상대적 특성과 차별성을 갖는지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은

① 같은 지역에서의 시기적인 변화과정과 함께 ② 같은 시기에 있어서 지역 간의 차별적 변화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도 병행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층별 이해의 종합 문제와 분야별

해석의 종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와 지역문화는 상대적 계층성을 가진 문화 집단들이 상호 협조와 경쟁, 타협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지역공동체의 산물이다. 크게 보면 역사나 각 분야별 문화의 내용들은 이러한 각 계층과 집단들의 이해와 상충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 발전하였고,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모습으로 형성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충과 타협, 변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계층별로는 문화가 어떠한 상관속에서 위상을 마련하였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지역적 특수성·차별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재 중심' 의 한계 극복

우리의 문화를 보는 시각은 현대의 문예적 예술 문화를 논의로 할 경우, 대부분 유형적인 문화재에 집중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문화재라고 부르는 것에는 미술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들 유형의 문화재가 중요 보존 대상이며, 주요 연구대상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한 역사와 문화사, 즉 종합적인 문화로서 읽혀지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의 '알기' 나 '찾기' 는 문화유산을 보고, 느끼고, 챙기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그 가치가 재생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활동을 매개로 그것이 활성화되어 "의식 있는 알기, 찾기, 가꾸기의 주체들" 이 성장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자료가 비단 이러한 유형적인 문화재에 국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유산의 범주 속에서 우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할 대상으로는 무형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비롯해 역사상의 인물이나 그들의 정신사도 있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 강한 생활문화와 민속 같은 분야에 대한 색다른 의식,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현대문화사 같은 광범한 문화 소재의 파악이 절실하다고 본다.

지역문화는 그 자체로 종합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체계화하여 차별적인 문화 특징을 구별하게 함으로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문화자료는 이제 지역에 관계되는

① 과거 역사의 지적인 자산이나 유산 ② 공간적 위치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이와 관련된 속성 ③ 지역사회에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 새로운 사실 ④ 지역의 고유한 정보와 각종 생활상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활용할 것이냐 하는 기술의 개발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_ 연구주제의 설정

학생들에게 자신이 쓰고 싶은 연구 주제를 적어내도록 해보면 어김 없이 황당해하면서 커다란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사람피에 대하여”라든가 “3.1운동에 관한 연구” 같은 식이다.

이러한 연구는 일생을 두고 혹은 각 방면의 종합적인 규명이 전제된 뒤에나 가능한 주제이고 내용상 실증보다는 관념이 앞서는 연구로 귀착될 것들이다. 즉 학생들이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실제 연구를 수행할 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제인 것이다. 욕심이 지나쳐서 설명이 같은 주제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볼을 보듯 뻔한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능력과 기호에 맞게 주제를 다시 축소(제한)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을 연구할 것이냐? 라는 가장 기초적인 명제이다. 우선 연구주제(대상)는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

남들이 많이 연구한다고 하여 자신이 별로 관심이 없는 문제까지 빠져든다거나 좌충우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주제는 가능하면 자기의 주변에서 구하는 것이 유익하다. 예를 들면 고향이나 자기의 조상,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것 등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요령이다.

■ 논문의 기획단계와 점검사항

- (1) 연구주제 선정동기 = 연구목적
- (2) 연구동향
- (3) 문제의식(및 가설) = 문제제기
- (4) 자료 확보량과 가능성
- (5) 예정 목차와 개요
- (6) 참고자료 및 논저
- (7) 추진 일정(계획)

■ 연구주제 선정 요령

- (1) 자신의 주변에서 주제 찾기

- (2) 능력과 기호를 살려
- (3) 단순 동기만으로는 안 된다 - 자료, 문제의식, 창의성.
- (4) 과욕은 금물, 논문은 ‘제한’과 ‘집중’이다.
너무 당연한 것은 논문제목이 아니다.
유행, 토픽에 너무 유혹되지 마라
개론서 · 해설서 · 교과서와 논문은 다르다.

5) 기존연구, 선배, 경험자와의 대화 필요

한편 연구할 주제는 우선 대상이 설정되었을 때 3-4단계의 범위와 예상제목을 생각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자기가 전남지방의 불교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계속 자료를 모아 왔다면 그 중에서 어떠한 분야(예컨대 불상, 사지, 불화, 사상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지, 그리고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중시되는 지역이나 대상 유적 · 유물을 상정해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면

- A. 전남지방 불교문화의 성격
- B. 전남지방 철불조성의 성격
- C. 장흥 보림사 철불의 조성고 그 성격

등으로 연구 대상과 범위가 구분될 수 있다. 위의 A의 경우는 일생의 연구주제인 셈이고 B의 주제는 C와 같은 연구가 축적된 뒤에나 가능한 연구인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향토사 연구 논문을 보면 자료나 주제로는 C에 속하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A와 B의 욕심이 앞서는 연구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말하였을 때 우리 향토사 연구자들이 수행해야 될 연구는 C의 단계보다도 한 단계 아래의 내용을 연구 주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결코 어떤 학설의 주장보다 자기 지역의 자료가 갖는 문화사적인 성격과 의미를 올바르게 규명하는 일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사실 이 과정상 자신의 열의에 의해 A, B의 문제도 그 주제 속에서 어느 정도는 용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문제의식과 연구의 창의성

어떤 연구가 됐던 진실한 연구의 목표가 제시되지 않으면 연구 의미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다소 한계가 있

더라도 이 연구가 진행되었을 경우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무슨 문제가 설명될 수 있는지 등등을 분명하게 해두는 자세가 요구된다. 논문의 형식이 아닌 자료정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연구목적의 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 **보편적 문제점과 한계**

자료정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입관과 억측
 새로운 결과에 현혹되어 객관성 확보 미흡
 연구자의 능력과 거리가 있는 연구범위의 확대 등 과욕

예컨대 우연히 발견된 자료가 가까워서, 무엇인가 해봐야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지는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설의 제시이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논리나 주장이 인정될 경우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 연구논문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자료의 구실을 하여야 하며, 이 같은 분명한 목적과 연구 의의의 규정은 그러한 생명력을 갖게 하는 기본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주제의 결정은 마음(욕심, 당위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객관성 있는 문제의식과 기본 자료 수집이 전제되어야 한다. 흔히 충동적인 계기로 주제를 결정해왔던 향토사연구의 현재까지의 수준을 생각할 때 이는 우리가 매우 유념해둘 일이라 생각된다.

즉 하나의 특별한 대상이 부각되었다거나, 선입관·아집을 지니고 어떤 대상을 연구과제로 선정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욕심까지 부가되면 억설과 자기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아 설득력을 잃게 된다. 하나의 주제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점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분야에 관하여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연구가 어떠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가? 나의 연구가 무슨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인가? 또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는 양적으로 충분한가, 보완될 부분은 무엇인가? 연구에 도움을 줄만한 주변인사는 과연 누구인가? 등등의 사전 설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설계가 가능하고 설계대로 연구가 완수되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연구의의를 지닐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생겼을 때 연구는 본격

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목적에만 관심이 집중되면 그 연구는 설득력을 잃기 쉽다. 그래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과정이正道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문제의식이 분명한 논문**

창의성, 새로운 논의점

서론 | 연구의 방향, 수준, 과제, 한계 정리가 필요 (연구동향)

연구동향과 문제의식이 목적과 주제로 반영되어 나온

논문이 好

⇒ 간단명료하면서, 남을 철저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

가 필요

왜 썼나? --- “1) 2) 3)!”

4.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활용

■ **정승모 선생의 강의 참조**

■ **향토사연구는 자료가 생명**

새로운 자료의 량과 질(기존자료와의 차별성)

자료는 논문의 창의성과 경쟁성의 토대

문제의식을 커버할 주요 자료가 반드시 수집되어야

새 자료 발굴, 재해석 자료(새로운 시각)

자료 발굴과정과 해제, 가치 설명

■ **자료 비판의 문제**

• 기록의 번역, 실증만으로는 곤란

재해석과 비판, 추정

기록 외 자료의 확대보완

• 의도적 ; 비의도적 ===== (주관, 의식)

체계적 ; 산발적 ===== (정리, 재해석)

완전 ; 불완전(단편) === (비교, 복원, 종합)

• 사료비판 (1) - 작성시기의 문제

• 사료비판 (2) - 기록, 편찬, 작성주체

• 사료비판 (3) - 목적 의도의 문제

• 사료비판 (4) - 비중, 참고자료 동원, 밀집도 문제

5. 자료의 정리와 목차

1) 기존연구 성과의 정리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착실히 정리하는 작업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학문적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연구의 질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를 무시하고 이미 다루어진 내용을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좋은 디딤돌들을 활용하지 못할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가 성의만 있으면 각종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기존연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동향]의 추적이나, [참고문헌]의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는 최근의 연구성과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성실도나 문제의식에서 유용하므로 반드시 참고하기를 권유한다. 아마 기존 연구성과를 착실히 검토하다 보면 자신의 연구가 무엇을, 어디까지 연구할 것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2) 수집 기초자료의 정리

연구의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대개의 경우는 자료별로 단편자료들을 카드화하여 분류·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요령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카드화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언제든 지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관하는 습관은 효율을 기하기 위해 꼭 모색해줘야 할 것이다. 서재의 책꽂이를 개조하여 빈책의 케이스를 이용하여 분류별로 보관하거나,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파일 박스를 활용하여 분류해두면 편리하다.

일단 자신의 방식대로 자료가 분류되어 있다면 이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이제 거론하려는 연구인 것이지, 연구라는 것이 결코 별개의 특별한 작업이 아님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이들 축적된 자료를 확인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연구주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화 시켜가는 것이 바로 연구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많이 알고 있다거나 기억 속에 간직한 자료와 이들 자료를 언제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3) 목차의 설정

주제가 결정되고 자료가 어느 정도(5-60%)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목차를 예정하여 두어야 한다. 목차는 가능하면 위에서 지적인 연구 목적에 맞게 이를 세분화한다는 생각으로 결정하면 좋다. 목차만 보아도 필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는지를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향토사(지역문화) 관련 논문의 목차를 예시하여 본다.

■ 순창 城隍祭의 변천과 주도세력

1. 순창 성황제 주도세력의 변천문제
2. 러말선초의 순창 성황제와 설씨?조씨
3. 군수 梁應鼎과 순창 성황제의 변화
4. 향리세력 주도의 조선후기 순창 성황제
5. 지역 축제로서 순창 성황제의 계승문제

■ 개태사와 논산·연산지역 문화

1. 연산지역의 문화사와 개태사
2. 개태사 일대의 전략지리적 성격
3. 호국, 도참사상과 개태사
4. 조선후기 민중신앙과 개태사 전설
5. 개태사의 영광 뒤이은 사족들의 정착

■ 안국사지의 연혁과 문화 성격

1. 안국사의 창건과 변천사
2. 안국사지 석불조성 시기문제
3. 안국사 석불 조성의 주제
4. 매항 암각과 민중들의 안국사

■ 충청수영의 역사문화사적 가치

1. 충청수영의 경관
2. 임란왜란, 병자호란과 충청수영성
3. 漕運, 造船과 충청수영
4. 호락논쟁과 수영성
5. 이양선과 천주교 갈매뭇 성지
6. 동학농민군과 충청수영성

그러나 이 목차는 연구의 과정상 언제고 바뀔 수가 있다. 다음 절에서 보듯 자료의 수집된 양이나 논리의 전개방향에 따라 주제까지도

연구과정에서 축소·제한될 수 있다. 또한 때에 따라서 2부 3부작으로 연속될 수도 있다.

4) 목차에 따른 자료의 분류, 보완

목차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모아진 자료들을 목차에 맞게 분류하여 한다. 크게 보아 연구의 주제에 관련된 자료는 많다고 생각되었으나 실제 목차별로 자료를 분류해 보니 어느 부문에만 집중적으로 자료가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부문에는 아예 하나의 자료가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목차를 수정하거나(연구주제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엄밀히 말하여 이 부족한 자료를 구하고 부족한 논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연구인 것이다. 이러한 부족감을 느끼면서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은 만용인 것이며 우리 향토사 연구도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분류결과 목차에 맞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거나 집중되어 있으면, 이를 재배정하거나 다른 자료를 보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재배정의 경우 연구주제나 목차의 조정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면 다행이나 만약 연구목적, 의의와 근본적으로 상치된다면 부족한 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색을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자료의 보완은 목적의식 없이 모았던 기존의 자료수집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기가 꼭 필요한 자료를 알면서 구하기 때문이고, 그 어려움은 욕구충족이라는 면에서 의식적 보상도 충분하다.

다음의 문제는 이들 목차별로 분류되고 보완된 자료를 서술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작업이다. 자료가 배열되면 이는 곧 글이 쓰여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논문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반드시 자료만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여기에 필자의 자의적인 주장과 견해가 삽입되게 된다.

5) 초고의 완성과 자료 첨부

위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논리와 참고자료를 연결하면 그것이 초고가 되는 것이다. 향토사연구의 보고서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필자의 이론보다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실측도면, 원문소개(자료) 등을 성실하게 첨부하는 일이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 여기에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註를 달면 논문의 외형적 구조는 마련된다.

물론 이 마무리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가 지닌 한계나 의미를 다시 부

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향토사 연구자들이라면 연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풀지 못한 과제들을 제시하여 다음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단서를 마련해주는 성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연구논문 발표의 의미

이상에서 간략하지만 하나의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유념해야 될 기본적인 문제들을 요약하였다. 이제 이러한 절차를 염두에 두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향토사 연구자가 잊지 말아야 할 유의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보고서의 작성이나 연구발표는 성숙된 연구자의 능력과시용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서로의 부족함과 한계점을 솔직하게 느끼는 한 지역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이며, 그를 위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둘째 서로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지방의 문화자료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자는 목적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자기 지역의 관련 자료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발견하며,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시각과 방법을 제시받자는 것이다.

셋째 비교문화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왜 그 같은 문화상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문화상이 어째서 없는가, 혹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를 총합적으로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이집과 선입관에 의해 향토사의 연구수준이 저급하다고 하는 학계의 지적도 부분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연구자적 자세를 고양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일관된 지역문화의 수집정리라는 토대 위에서 구조를 갖지 못하고 보물찾기식의 자료정리에 그치는 경향은 점차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이혜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기획

인륜지 대사 (人倫之大事) 혼인례(婚禮) ②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4. 납폐(納幣), 납폐서(納幣書·婚書)와 함들이

(1) 납폐 | 폐는 폐백(幣帛), 즉 예물 비단이므로 납폐는 신랑쪽에서 신부쪽에 비단 예물을 드린다는 뜻이다. 왜? 예물을 드릴까. 선비는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여자도 계례(笄禮)를 해서 성인이 되면 여자선비(女士)가 되는데 여자선비가 움직여 며느리로 오게 하려면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예물이지 신부를 시는 값이 아니다. 요사이 폐백을 넣은 함을 팔고 시는 못된 풍속이 있다. 어떻게 예물을 팔고 시는지 딱한 일이다. 예절을 모르는 무례막지(無禮莫知)한 사람들의 짓거리이다.

(2) 채단의 수량 | 납폐하는 예물은 채단(綵緞)이라는 비단이다. 수량은 아무리 많아도 10끝(段)을 넘지 않고 적어도 2끝은 되어야 한다. 음양색인 청단(靑緞)과 홍단(紅緞)으로 넣는다. 마련하지 못하는 집에서는 물감을 드린 홍색종이와 청색종이 1장씩을 넣기도 하였다. 혹은 다른 물건으로 넣기도 한다. 우리나라 풍속으로 채단 외에 목화씨, 볍씨, 콩, 팥 등을 넣기도 한다. 홍단은 청색종이로 짜서 청홍실로 나비맺음해(고紐)가 2개, 혹은 同心結이라는 매듭을 매기도 하는데 선비 중에는 男女가 同心이란 亂雜한 것이라고 기피하기도 하였다.) 묶고 흰종이로 다시 썬다. 청단은 홍색종이로 짜서 청홍실로 나비맺음해 묶고 흰 종이로 썬다.

(3) 물목기(物目記) | 함속에 넣은 품목과 수량을 적은 물목기를 준비한다.

(4) 함 싸기 | 함의 바닥과 4면 벽에 흰종이를 편다. 청·홍단 구분

없이 차례로 넣고(다른 물품이 있으면 이때 넣는다), 흰종이를 여며서 덮고, 그 위에 물목기를 위가 함을 넣는 사람의 왼쪽이 되게 올려놓는다. 덮개를 덮고 청홍 겹보로 홍색이 밖이 되게 싸고 묶음매듭에는 근봉(謹封)이라 쓴 봉합지(封緘紙)를 끼운다. 무명(木棉)이나 소창베 12m 정도로 함을 단단히 묶고 어깨에 멜 수 있도록 멜방을 만든다.

(5) 납폐서(納幣書, 婚書紙)

- ① 신랑쪽 어른이 신부쪽 어른에게 “예물을 보내니 살피 받으십시오.”의 내용을 쓴 편지이다.
- ② 봉투는 봉하는 날개를 만들지 않고 아래와 위를 띄워 관통시킨다. 그래서 봉할 수 없으니까 근봉(謹封)이라 쓴 봉합지(封緘紙) 3개를 만들어 봉투의 상중 하에 끼운다.
- ③ 속종이는 한지(韓紙) 전지(全紙)를 잘라내지 않고 4방의 갓(邊)만 다듬어서 쓴다.(이렇게 전지로 속종이를 쓰니까 결을 맞추어 봉투를 만들면 봉하는 날개를 만들 여유가 없어서 봉투의 아래 위에 날개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 ④ 이 납폐서를 청홍색 겹보로 홍색이 밖이 되게 쥘다.(그것을 함에 넣는 사람이 있는데 실수이다. 편지를 먼저 읽고 함을 받아야 하는데 함속에 편지를 넣으면 편지를 먼저 읽을 수 없어서이다.) 그것을 구기지 않고 넣을만한 납폐서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넣는다. 그 상자를 검은색 겹보로 쥘다. 요사이는 상자에 넣지 않고 청홍 겹보로 쥘 것을 바로 검은색 겹보로 쥘다.

(6) 납폐 주고받기

- ① 신랑의 집에서는 납폐가 떠나는 날 아침에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선조에게 아뢰는다.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날 납폐를 했으므로 따로 선조에게 아뢰 필요 없이 있었지만 요사이는 혼인예식날 전의 다른 날에 납폐를 따로 함으로 선조에게 아뢰는 절차가 따로 있어야 한다.
- ② 신랑측 집사가 납폐서를 받들어 들고, 함진아버가 함을 지고 신부의 집으로 간다.
- ③ 신부의 집에서는 함을 받는 장소를 펼치고 기다린다.
- ④ 신랑측 집사가 그 장소의 서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에 있는 신부측 집사에게 납폐서를 올린다. 신부측 집사는 그것을 받아 보자기를 풀고 납폐서 봉투를 신부의 어른에게 올린다.

⑤ 신부의 어른은 납폐서를 펼쳐서 읽은 다음 집사에게 도로 주고 집사는 납폐서를 보자기로 다시 싸서 상위에 놓는다.

⑥ 신부의 어른이 선언한다. “납폐차 오느라 수고하였오. 이제 납폐를 받겠오.” 그러면 신부측 집사가 서쪽으로 옮겨 신랑측 집사와 함께 함진아버에게서 함을 벗겨 상위의 봉채(奉綵)떡 시루위에 올려놓는다.

⑦ 신부쪽의 어른이 동쪽 자리위로 옮겨 서쪽을 향해 재배한다. 함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보낸 신랑측 어른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⑧ 신부측 집사가 신랑측 일행을 인도해 다른 방으로 가서 대접한다.

⑨ 신부의 어른은 함을 사당으로 옮겨 선조에게 아뢰고, 함을 안방으로 옮겨 안어른이 함에 손을 넣어 흥단을 먼저 꺼내면 첫아들을 낳고, 청단을 먼저 꺼내면 첫딸을 낳는다는 풍속이 전한다. 봉채떡의 웃기는 신부감이 먹는다.

⑩ 신부측 어른이 별실로 가서 신랑측 일행에게 폐백을 주며 수고를 사례한다.

5. 대례(大禮), 예식과 서현 부자부모례(塔見婦之父母禮)

가) 서 부모례(誓父母禮)

(1) 고우 사당(告于祠堂) | 신랑·신부 양가에서는 혼인예식날 아침에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조상에게 아뢰는다. 자녀의 혼인이 가까우면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혼인을 하려면 납채 주고받을 때, 납기를 주고 받을 때, 납폐 주고받을 때, 혼인날 아침 등 4차례를 특별히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아뢰는 절차가 있는데 돌아오는 기제사(忌祭祀)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이다. 더욱 정성스럽게 행복한 혼인을 빌며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

(2) 초자례·초녀례(醮子禮·醮女禮) | 신랑과 신부가 자기의 부모에게서 혼인에 관한 교훈을 받고, 낳아서 키워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 것을 맹서하는 절차이다. 원래는 신랑·신부가 선조에게 아뢰고 자기 집에서 했었는데 현대는 조상에게 아뢰는 일반 집에서 하고, 부모에게 서약하는 절차는 예식장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아들과 딸이 초자례실과 초녀례실 문앞에서 방을 향해 북향

해 선다. 이때 아들의 옷은 사모와 관대(紗帽冠帶)이고 딸의 옷은 족두리에 원삼(簪頭里 圓衫)으로 혼인예복을 입는다. 신랑의 좌우와 신부의 좌우와 뒤에는 여집사(女執事)가 따른다.

② 부모가 정한 자리에 앉으면 아들·딸이 방으로 들어와서 북쪽의 정한 자리에 남향해 선다.

③ 집사가 술을 딸아 잔반을 들고 아들·딸을 향해 서면, 아들·딸은 남향해 곁절을 하고, 잔반을 받아서 꿇어앉아 모사(茅沙)에 채주(祭酒)하고, 일어나서 서향해 꿇어앉아 남은 술을 마시고, 일어나서 잔반을 집사에게 준다.

④ 아들·딸이 남향해 곁절을 하고 꿇어앉으면, 부모가 교훈을 주고, 아들딸은 부모의 교훈을 따를 것을 서약하고 아들·딸이 다시 곁절을 한다.

⑤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숯기러기를 머리가 아들의 왼쪽으로 가게 안겨 준다. 신부인 딸은 이제 신랑이 올 것이므로 부끄러워 어머니의 왼쪽 뒤에 숨어 선다.

나. 전안례(奠雁禮)

(1) 신랑이 신부택에 기러기를 올리는 의식이다.

기러기는 짝을 다시 짓지않고(不再偶之義), 새끼를 많이 깐다(攝盛之義). 그러므로 신랑이 신부택에 “기러기같이 지조를 지키며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겠으니 따님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라는 서약인 것이다.

(2) 신부택에서는 방앞에 암기러기를 올려놓은 상(奠雁床)을 놓고 상의 남쪽에 자리를 깔아놓는다.

① 신랑이 기러기를 안고 신부택(초녀례실) 문앞의 서쪽에 와서 동쪽을 향해 선다.

② 신부의 어른이 문앞 동쪽에서 서향해 평읍례(平揖禮)를 하면 신랑은 굴신례(屈身禮)를 한다.

③ 신부의 어른이 전안상의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신랑이 전안상 남쪽에 와서 북향해 선다.

④ 신랑이 꿇어앉아 숯기러기를 전안상위의 암기러기 남쪽에 머리가 서쪽을 향하게 올리고, 큰절로 곁절을 하는데 신부의 어른은 답배하지 않는다.

⑤ 신랑이 두 번째 절을 할때에 신부의 안어른이 나와서 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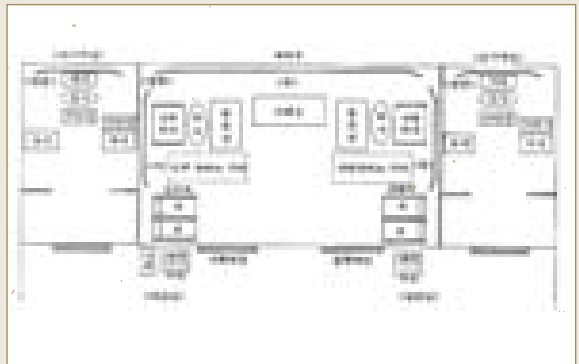
상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신부가 나와서 전안상이 있던 자리에 선다. 전안상을 안으로 치운 것은 신랑의 서약을 승낙한 것이고, 신랑이 절하고 일어났을 때에 그 자리에 신부가 나와 있으니 신랑은 황홀지경일 것이다.

⑥ 신랑이 신부에게 중읍례를 하고, 신부는 굴신례로 답례를 한다. 신랑이 앞서고 신부가 뒤따라 대례청으로 가는 것이다.

다. 교배례(交拜禮)

(1) 대례청(大禮廳)의 배치와 상차림

① 대례청의 배치와 상차림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한다.



근배상개

동로상 2개 (신랑, 신부 각상)

② 동로상(同牢床)은 신랑·신부앞에 따로 2개를 차린다. 동로상의 뒤쪽에는 신랑과 신부가 앉을 의자를 놓는다. 원래 동로상의 상차림은 지방과 계절에 따라 음식이 다를 것이므로 정한 것이 없었으나 현대는 정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할 것이다.

③ 신랑과 신부의 절은 맞절이고 맞절은 가운데가 막히면 안됨으로 절하는 자리는 동로상의 남쪽에 펴게 되었다.

④ 술과 표주박잔 등은 원래는 신랑의 뒤인 동쪽에 따로 상을 놓고 그 위에 차려서 매번 갖다 쓰게 했는데 불편하므로 신랑 신부의 동로상 중앙에 근배상(잔 杯床)을 놓아 편리하게 한다.

⑤ 옛날에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꺾어서 병에 꽂았는데 그러면 죽은 나무가 됴므로 분재에 심어서 산나무를 쓰는 것이 좋다.



⑥ 홍실과 청실을 서로 묶어서 남녀가 하나가 됨을 상징했었는데 공개적인 그 모습이 난잡하므로 묶어놓지 않고 신용장의 역할을 하게 설정하였다.

⑦ 원래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했기 때문에 신랑의 어머니가 참석할 수 없었으나 현대는 예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부모의 좌석을 신랑과 신부의 뒤에 배치한다.

⑧ 원래는 세수대야를 신부의 것은 서북쪽에 놓고 신랑의 것은 동남쪽에 놓았었는데 현대는 신랑과 신부가 모두 남쪽에서 대례청으로 올라가게 됨으로 세수대야를 모두 남쪽 동서에 놓았다.

⑨ 일반적으로 세수대야를 절구통위에 올려놓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 알고 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받침대와 수건걸이를 배치한다.

⑩ 초자례실은 대례청의 동쪽에, 초녀례실은 대례청의 서쪽에 배치하여 남동여서(男東女西)의 원리에 따른다.

⑪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전통 혼인예식장에서 어려운 형편에 할 수 없어서 하던 것들을 전통으로 알고 해서는 안된다. 원리에 입각해서 옛 예서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 할 것이다.

(2) 교배례의 절차

① 신랑은 대례청의 동쪽계단 아래에 북향해 서고 신부는 서쪽계단 아래에 북향해 선다.

② 신랑·신부의 부모가 정한 자리에 앉는다. 신랑·신부의 안어른이 근배상앞으로 나아가 신랑 안어른은 동쪽의 홍초에, 신부 안어른은 서쪽의 청초에 불을 켜고 원자리에 앉는다. 원래는 없었는데 뜻이 아름다워 행한다.

③ 신부의 집사는 동쪽에 신랑의 자리를 펴고 신랑에게로 가고, 신랑의 집사는 서쪽에 신부의 자리를 펴고 신부에게로 간다. 신랑과 신부는 집사의 도움을 받아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④ 신랑은 서향해 신부에게 중읍례를 하고 신부는 동향해 신랑에게 굴신례를 한다. 신랑은 동쪽의 자리위에 오르고, 신부는 서쪽의 자리위로 오른다. 집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⑤ 신부가 신랑에게 2번 큰절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1번 큰절로 답배한다. 신부가 또 2번 절하고 신랑이 또 1번 답배한다.

라). 서천지례(誓天地禮)

(1) 신랑과 신부가 절대자이며 초능력자인 하늘과 땅에 서약하는 절차이다.

① 신랑이 신부에게 중읍례를 하고 동쪽의 의자에 앉고, 신부가 굴신례를 하고 서쪽의 의자에 앉는다.

② 신랑과 신부가 술을 받아 눈높이로 올려 하늘에 서약하고, 바닥에 내려앉아 모사에 좌주(祭酒)하여 땅에 서약하고 의자에 올라앉는다.

③ 신랑과 신부가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빈 그릇에 담는다 [擧餚].

마). 서배우례(誓配偶禮)

(1) 신랑과 신부가 같은 잔의 술을 교환하여 함께 나누어 마시는 합환주(合歡酒)로 서로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절차이다.

① 신랑의 우집사는 왼손목에 홍실을 걸치고, 신부의 우집사는 오른손목에 청실을 걸친다.(홍실·청실은 근배상 위의 소나무와 대나무에 걸쳐져 있는 것이다.)

② 신랑·신부가 술을 받아 가슴높이로 올리고 반쯤 마신 술잔을 각 우집사가 받아 배우자 쪽에 갖다 주고 배우자가 그 잔을 받아 가슴높이로 올렸다가 다 마신다. 집사가 빈 잔을 받아 원자리로 돌아간다.

바). 근배례(盃 杯禮)

(1) 신랑과 신부가 표주박잔으로 술을 마셔서 하나의 박이 둘로 나누어져 표주박잔이 되었다가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원래 하나였는데 따로 태어났다가 혼인하여 다시 하나가 된다는 부부가 되었다는 선언적인 절차이다.

① 각 우집사가 근배상에서 표주박잔을 갖다가 술을 따르면 신랑과 신부가 그 술을 마신다.

② 각 우집사가 빈 표주박잔을 갖다가 근배상 위에 합해 놓고, 각기 손목에 걸쳤던 청·홍실을 원 자리에 걸친다.

③ 이렇게 해서 혼인예식이 모두 끝난다.

사). 합궁례(合宮禮)

(1) 신랑과 신부가 몸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혼인예식의 가장 중

요한 결정적인 절차이다.

- ① 신부의 집에서 첫날밤을 차린다. 원앙금침을 위쪽은 벌려 깔고 발쪽은 포개서 간다. 발을 뺀 쪽이 북쪽이고, 신랑이 동쪽, 신부가 서쪽에 잔다. 부부는 아래 위가 없는 동위격(同位格)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래쪽에 잘 수가 없어서 남동여서(男東女西)로 자리잡는 것이다.
- ② 첫날밤은 옛을 보는 것이다. 딸에게 성교육(性教育)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옛을 보며 실수를 고쳐주는 것인데 장모가 사위의 벗은 몸을 볼 수가 없어서 유모가 대신 본다.

아). 서현 부지부모례(婿見婦之父母禮)

- (1) 사위가 처음으로 장인과 장모에게 폐백을 올리며 뵙는 절차이다.
- ① 첫날밤에서 아침에 일어나 소세(梳洗)하고 준비된 폐백을 들고 장인 앞으로 가서 어른 앞의 탁자위에 폐백을 올리고 큰절로 곁절을 한다. 장인은 일어나서 사위의 절을 받는다. 답배하지 않는다.
- ② 이어서 장모의 앞으로 가서 탁자위에 폐백을 올리고 큰절로 곁절을 한다. 장모는 일어나서 평절로 2번 답배를 한다.
- ③ 사위는 장인과 장모의 앞에 꿇어앉아 교훈의 말씀을 듣는다.
- (2) 이어서 신부의 친척들과 인사를 한다.
- (3) 아침 식사를 하고 처가의 사당에 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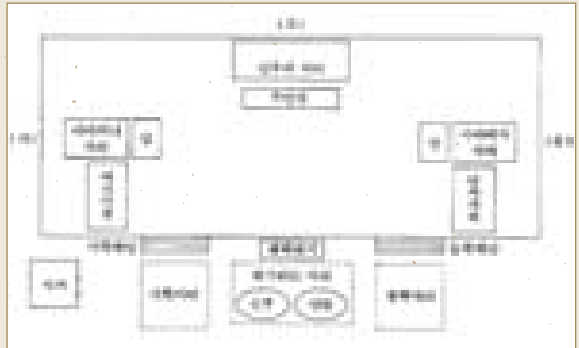
6. 우귀례(于歸禮)

가). 준비

- (1)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행하는 절차이다.
- (2) 신부는 친정에서 준비한 시부모에게 올릴 폐백과 시댁 근처에 올릴 예단을 가지고 시댁으로 온다.
- ① 시아버지에게 올릴 폐백은 대추와 밤을 준비한다. 대추는 붉은 색깔이고 붉은 것은 해의 색이고 해는 아침 일찍을 의미한다. 밤은 서(西)쪽나무(木, 栗)라 쓰는데 옛날에 밤나무 밑에서 죄인의 목을 베었으므로 밤나무는 두려워서(懼)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받들어 뵙으며 시집살이를 하겠습니까.”고 서약하는 것이다.

② 시어머니에게 올릴 폐백은 육포(肉脯)를 준비하는데 육포는 단수(脰脩)라고도 한다. 단(脰)은 한결같다는 뜻이고 수(脩)는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받들어 뵙시겠습니까”고 서약하는 것이다.

(3) 신랑의 집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현구고례 장소를 설치한다. 옛 예서에는 ‘만일 마당이나 대청과 같이 넓은 장소에 설치할 때는 백묵으로 대청, 뜰, 계단, 마당을 구획해 그리고 설치한다.’고 하였다.



나). 현 구고례(見舅姑禮)

- (1)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리며 절하고 뵙는 절차이다. 시조부모가 계셔도 현구고례는 시부모가 구고(舅姑)이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먼저 하는 것이다.
- (2) 신랑 신부가 함께 시부모를 향해 큰절로 곁절을 하고, 신부가 시아버지에게 4배를 하고, 폐백을 들고 가서 직접 시아버지 앞의 탁자위에 올리고 내려와서 다시 4배하면 시아버지는 폐백을 어루만진다.
- (3)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4배를 하고, 폐백을 들고 가서 직접 시어머니 앞의 탁자위에 올리고 내려와서 다시 4배하면 시어머니는 폐백을 어루만진다. 신랑과 신부가 시부모에게 곁절을 한다.
- (4) 신부가 시부모에게 술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다). 구고예부·지(舅姑禮婦·之)

- (1) 시부모가 며느리를 칭찬하며 교훈을 주는 절차이다.
- (2) 신부가 신랑의 인도로 북쪽의 정한 자리에 남향해 서고 신랑은 아버지의 왼쪽 뒤에 서향해 선다.

(3) 집사가 술잔을 들고 서면 신부가 4배하고 그 술잔을 받아 췌주하고, 남은 술을 마시고, 다시 4배하고 남향해 앉는다.

(4) 시부모가 칭찬하고 교훈을 내린다. 이 때 시아버지가 계자부서(戒子婦書) 같은 것을 내리며 읽고 해석해 주기도 한다. 절수건에 밤 대추를 던지며 “아들 딸 많이 나라”고 덕담을 하는 풍속이 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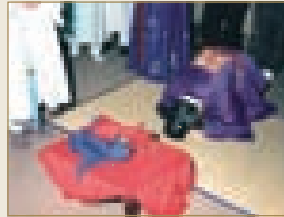
신랑의 초자례 장면



신부의 초녀례 장면

라). 현우존장례(見于尊長禮)

(1) 조부모를 위시한 윗대 근친 어른에게 예단을 올리며 큰절 곁절을 한다.



신부택에서의 전안례 장면



혼인예식 신랑이 서 천지례 술을 받는다

마). 상면제친(相面諸親)

(1) 같은 세대 웃어른, 아랫사람, 아랫 세대 근친과 차례로 인사를 한다. 웃어른에게 절을 할 때는 서쪽에서 동쪽의 어른에게 평절로 하고, 아랫사람과 인사할 때는 동쪽에서 서쪽의 아랫사람에게 평절로 답배하고, 아랫세대의 절은 서서 받는다.



혼인예식 신부가 서 천지례 술을 받는다.



현우고례 신랑 신부가 대기석에서 절을 한다.

바). 궤우 구교(饋于舅姑)

(1) 신부가 친정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시부모에게 차려 올리고 술도 올린다.

(2) 신부가 평생 공궤(供饋)해야 할 시부모에게 자기의 음식솜씨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신부가 시아버지에게 폐백을 올리러 간다.

사). 구교 향부·지(舅姑饗婦·之)

(1) 시부모가 신부에게 음식을 차려서 내리는 절차이다. 며느리에게 큰상을 내렸다는 옛말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시집의 음식을 맛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때 남은 음식은 친정으로 보낸다. 신부는 특히 간장과 조리된 음식은 골고루 맛보는 것이 예의이다.

아). 부 현우사당(婦 見于祠堂)

(1) 신부가 우귀해서 3일 뒤에 시택의 조상에게 뵙는 절차이다.

(2) 신부가 미나리 한 접시를 제상 위에 올리고 절한다. 미나리는 춘추동 사시에 푸른 채소이다. 이렇게 시택을 늘 푸르게 창성하게 하겠다는 서약의 의미가 있다.

거창문화원

여성 주간 기념 직장 여성 대상 생활예절 체험 및 문화탐방 실시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2009년도 여성 주간을 맞아 지난 7월 3일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직장 여성 대상 생활예절 체험 및 문화 탐방 행사로, 관내 직장 여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 하동군의 쌍계사와 차문화체험관, 최참판댁을 방문하였다.



차문화체험관에서는 김명애 예절강사님으로부터 다례, 절하는 법, 웃고름 매는 법 등 기본예절들을 배웠으며, 정주환 거창문화원장님으로부터 기체의례에 대한 설명과 '생활 속에 담긴 예절 문화' 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예절 체험과 더불어 쌍계사와 최참판댁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하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통예절과 생활상식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로 인해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던 여성들에게 오랜만의 휴식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

거창문화원은 여성의 역할이 크게 돋보이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의 지혜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거창 문화 역사 알기 체험 행사 가자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지난 7월 11일 2009년도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일환으로 거창 문화 역사 알기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내 기업체 가족들에게 지역 역사 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애乡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서, 서울우유 거창공장 직원 가족들을 초청하여 거창의 명승지와 문화 유적지 답사, 농촌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표선사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여 거창박물관, 동계선생 종택, 갈천선생 생가, 한결고운괭리리, 수승대 등을 답사하였으며 월성체험마을에서 농촌 체험 행사도 가졌다.

농부 옷에 밀짚모자를 쓰고 감자를 캐거나 마을 사람 이름 알아오기, 곤충잡기, 월성마을 역사 조사하기, 식물 뿌리가져오기 등 이장님이 내 주신 숙제를 하며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농촌 생활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으며, 직장을 따라 거창으로 이동하여 살고 있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직장 가족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성남문화원

세 번째 둔촌 이야기 자리

‘여름, 둥근 날 밤에’ 및 개원31주년 기념식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7월 7일, 음력 5월 보름을 기해, 여름, 둥근 날 밤에 (세 번째, 둔촌 이야기 자리)와 <개원 31주년 기념식>을 둔촌 사당 ‘추모재’ 에서 개최했다.



<개원 31주년 기념식>은 감사패 수여 및 우수 직원 표창과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이어서 우리 고장의 큰 어른, 고려 말 대학자 둔촌 이 집(李集, 1327~1387) 선생의 추모 문화행사이자, 성남시 향토유적 제2호에서·경기도 기념물 제219호로 승격·지정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세 번째, 둔촌 이야기 자리>가 개최됐다.

급년 3월, 봄, 둥근 날 밤에 이어, 이번 세 번째 행사는 싱그러운 여름날의 짙은 녹음 속에서 개최됐다. 광주이씨 대종회 이

해재 도유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종원 문화유사의 ‘둔촌 문화사업 안내’와 축하공연으로 정길선 연주자의 가야금 산조 ‘김윤덕 류’, 성남시립합창단의 현악4중주 ‘아리랑’과 중창 ‘선구자’, ‘강 건너 봄이 오듯’이 이어졌고, 김선택 작곡(성남시립합창단)의 ‘큰 기침 소리’ (한춘섭 작)가 초연되어, 잔잔한 소프라노 솔로로 펼쳐져 보는 이들의 마음에 애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시조시 ‘큰 기침 소리’를 김춘화 우리문화원 문화학교 중국어 강사가 중국어와 한국어로 낭송하는 이색적인 순서가 마련됐으며,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의 ‘둔촌 선생님 생각하기’ 강의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둔촌 이야기 자리>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음력 보름을 기해 연중 4회 개최되어, ‘둔촌 이 집’ 역사인물 알리기 행사로 시낭송, 공연, 토론회와 더불어 청소년 음악회 등 더욱 다양한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제18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 강정일당 추모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이자, 문화관광부 2005년 7월 '전국 문화인물'로 선정된 강정일당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제18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를 지난 7월 11일 남한한성 유원지 놀이마당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고하는, 명실상부 성남을 대표하는 글짓기 대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손길, 호수, 꿈, 우리 성남시'를 주제로 남한산성에서 치러진 이번 백일장은, 4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끝났으며,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제12회, 강정일당상> 시상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포천문화원 반월문화제 우수작품 전시 및 시상식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7월 4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각급기관 단체장과 수상자, 가족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반월문화제 우수작품 전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문화원 이모저모

이날 전시회는 사생 및 서예, 사진 등 우수작품 145점과 전국 휘호대회 입상작품 111점을 함께 전시하여 작품의 우수성과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등 자긍심을 심어 주는 한편 서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별전시로 “포천의 옛 사진” 50여 점을 전시하여 포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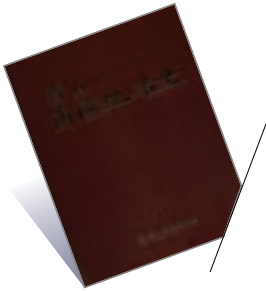
시상은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 등 분야별로 차하 및 우수 이상 110명,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7명, 좋은 책 읽기 독후감 입상자 14명 등 131명에 대하여 각급기관장이 직접 시상하여 대회의 권위를 높였으며, 포천초등학교가 종합우

승을 차지하여 트로피와 우승기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제23회 반월문화제는 다른 해보다 많은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여 우수한 작품들이 더욱 많이 출품되고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 함께 즐기는 모습은 종합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춘 시민축제의 장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했다.

또한 포천문화원에서는 이날 제23회 반월문화제 우수작품집 “반월23호”와 휘호대회 작품집을 발간 배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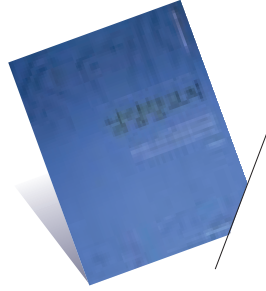
신간 소개



蔚山南區地名史

울산남구문화원 발행

울산남구문화원에서 울산남구지명사를 펴내었다. 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이 책지는 남구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실려있다. 윤성태 울산남구 문화원장은 이 책이 향토사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잘못 표기되고 있는 지명을 바로잡을 기회가 된 것이 큰 성과라고 간행사에서 밝혔다. 이제까지 여러 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지명들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설명과 사실이 다른 것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세히 소개했다. 동별 조사위원들이 제보자를 상대로 구술조사를 하고 2차로 추가 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했다. 각 동의 연혁과 세부적으로 마을 편, 지형 편, 문화유적 편, 시설물 편의 순서로 배열해 울산남구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볼 수 있다. 사진과 상세한 설명이 있어 울산남구의 중요한 자료로 남을 것이다.



남양향교지

남양향교 화성시 화성문화원 발행

남양향교, 화성시, 화성문화원에서 남양향교지를 발간하였다. 남양향교는 남양부 지역의 유학교육을 책임진 교육기관이었다. 기봉서 화성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남양향교도 새로운 시도에 발맞추어 도약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책을 통해 남양향교의 건립사가 새롭게 조명된 점, 문묘향사의 과정, 공간 구조의 특징, 종건과 이건 과정 등이 규명된 것도 뜻깊은 일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 지도와 사진으로 본 남양향교, 제2부 남양향교의 역사, 제3부 남양향교 자료집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부록으로 ‘향교전안’ ‘교궁이건시 부역전 봉상용하정달 구별성책’ ‘교토양안’ 등 3건의 성책고문서를 수록하였다. 한때 우리나라의 지역 교육을 맡았던 기관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책자이다. 변모해가는 향교의 역사를 더듬어보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정정희 씨

지난 5월 14일 공주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충청남도지회장에 정정희 씨(당진문화원장)가 당선 되었다. 7월 8일 설악웨딩타운 5층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도내 문화원장, 당진군수, 당진군의회위원장, 충청남도의원, 당진경찰서장, 당진교육장이 참석했다. 정정희 충청남도지회장은 충남의 문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과 운영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선진적인 문화사업 발굴 육성과 더불어 문화원 내부적 체질 개선 및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도입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정희 지회장은 현 당진문화원장으로 있으며 당진시승격 추진위원회 공동의장과 서산장학회 제단아시아와 당진군자부장에 있다.



공주문화원장 나태주 씨

제 15대 공주문화원장에 나태주 씨가 5월 28일 총회에서 총 유권자 80명 중 76명이 참여한 가운데 41표를 획득해 공주문화원장에 당선됐다. 2009년 7월 1일(수)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 김태룡 시의회 의장,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참여했다. 나태주 공주문화원장은 운영방향을 전통의 계승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로 잡고 부원장 중심의 기획, 위원회 중심의 실천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취임사를 통해 각오를 밝혔다. 또한 자율과 책임이 동반된다면 더욱 좋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포부를 다졌다. 나태주 공주문화원장은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생활을 하며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고 서울신문의 시부문으로 등단하기도 하였으며 충남문인협회 회장, 공주문인협회 회장, 충남시인협회 회장, 한국시인협회 부회장을 거쳐 공주문화원 운영위원 및 이사·감사를 16년간 역임했다.



영광문화원장 정영길 씨

제 10대 영광문화원장으로 정영길 씨가 선출됐다. 지난 5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추대로 선임된 정영길 영광문화원장은 영광군 문화공보실 실장, 환경보호과 과장, 지역경제과 과장, 영광군 영광읍 읍장을 역임하였다. 2009년 7월 2일(목) 영광 영민웨딩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진라남도지회장, 영광군수, 군의회위원장 및 의원, 영광 각 기관 사회단체장, 문화가족 회원 등이 참여했다. 정영길은 영광문화원장으로서 회원 확충과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 간 화합이 정신으로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의 단결과 영광문화원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주력하는 물론 유관기관사회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영광군민이 인정하는 문화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각오를 밝혔다.



영월문화원장, 강원도문화상 수상 유성목 씨

유성목(73) 영월문화원장이 7월 8일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향토문화연구부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51회 강원도문화상을 수상했다. 강원도문화상은 강원문화창달과 향토문화, 체육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도민을 선정, 우수 문화예술인 육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59년부터 올해까지 51회 239명을 수상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강원도내 최고의 상으로 알려져 있다.

유성목 원장은 1970년 석정여고 교감 재직 시 학교에 국악부를 만들어 단중 제향 때 국립국악원에서 하던 제례악을 지역 학생으로 대체하여 20여 년간 참여시킨 것을 비롯하여 단중역사와 김삿갓 내용 보급에 앞장, 단중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 단중관련 논문 단중연구논총 발간, 단중 국장 제안, 영월지역 민속신앙과 성황당 조사 및 영월 민속사 발간 등 지역 향토 문화를 연구하고 계승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성목 원장은 영월중·공고를 졸업하고 중앙대 정치외교학과·고려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출신으로 석정여중 교장, 영월JC 창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단중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영월군 도시계획 위원, 영월문화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유성목 원장은 "먼저 군민들의 성원과 문화원 관계자들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8년간 문화원장으로 있으면서 영월 향토문화의 토대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며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남은여생을 바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